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5 + 6
MAY + JUN
2021 vol.12



특집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 사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청년, 일터 이야기 언택트(Untact) 시대의 소통의 장을 꿈꾸며

문화로 세상 보기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 함께 나누는 예술

ISSN 2671-8731

Contents

MAY + JUNE · 2021

시선

세상의 '뉴노멀'은 교회의 '노멀'이 될 수 없다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뉴노멀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 신국원 04

특집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

뉴노멀 시대의 소비생활과 '소비자' | 김태환 06

'래디컬'과 '애자일'이 공존하는 시대 | 김경민 08

뉴노멀 시대, 인공지능(AI)과 공존하는 삶 | 최우성 10

축복의 파이프라인에서 사랑의 플랫폼으로 | 김보경 12

예술이나 돈이나 | 신영선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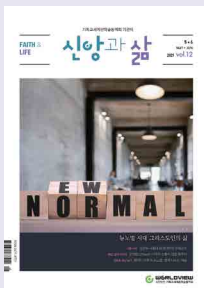
뉴노멀 시대의 목회적 위기와 희망에 대하여 | 김영택 16

사람 사이

김정옥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18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동역자입니다 | 김지원 22



2021. 5+6월호 | 제12호(통권 227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는 삶: 어느 청년 공학자의 비전 윤현준	24
뉴노멀 시대, 어느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 정성민	26

청년, 일터 이야기

빛의 여로를 향해 가는 삶 김고은	28
언택트(Untact) 시대의 소통의 장을 꿈꾸며 최은미	30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날로그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추태화	32
----------------------------------	----

미술을 보다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 함께 나누는 예술 서성록	34
------------------------------	----

책을 보다

뉴노멀 시대 구원의 첫 걸음, 소독의 현재를 이해하다 황윤민	36
뉴노멀 시대의 노동을 생각한다 유재홍	38
뉴노멀 시대: 한국교회와 강단에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 정창균	40
뉴노멀 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석종준	42
하나님을 위한 미국 되찾기: 미합중국의 기독교 국가주의 황영철	44

교회 路

서향교회 '청년신학아카데미' 백성은	46
소감문: 하나님 나라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게 하는 마중물 유재근	47

온전한 지성

소비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에 대한 연구 이상민	48
--------------------------------------	----

소식

독자한마디	50
사무국 소식	51
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3



세상의 '뉴노멀'은 교회의 '노멀'이 될 수 없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자동차, 인터넷, 스마트 폰 등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과 민주주의, 보편교육, 보편복지 등의 제도적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을 많이 바꿔 놓았다. ‘코로나 19’라는 대재앙도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아마도 비대면 인간관계와 재택근무, 전자 상거래, 온라인 강의 등 거기서 파생되는 변화들일 것이다. 대부분 감염확산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지금은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비정상적’(abnormal)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 개인에게서는 습관, 사회에서는 관습으로 정착되면 ‘새 정상’(new normal)으로 인정되다가 ‘정상’(normal)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지,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비대면 관계에 대한 경험이 너무 나빠서 대면 관계를 더 선호하는 반작용도 일어날 수도 있다.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지한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다시 모여 함께 즐기고 있다. 그러므

로 비대면 문화가 정상으로 정착될지는 유동적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비대면 인간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000년이 넘도록 대면 예배와 대면 교제가 정상이었고, 그 때문에 무수한 핍박도 받았으며 그런 핍박은 지금도 중국, 북한 같은 곳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변화를 방관하고 따르기만 할 수는 없다.

비대면 문화가 과연 바람직하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따져보아야 하고, 바람직하지 않으면 저항해야 한다. ‘정상’(normal)이란 본래 주어진 ‘규범’(norm)에 맞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문화가 세속화함에 따라 종교, 형이상학, 영원, 이성, 원칙 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이제는 주어진 ‘규범’이 아니라 ‘다수가 하는 것’, ‘평균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normal)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풍조에 동조하고 적응해야 할 것인가?

성경의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인격적’(personal)이고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서 독특하다. ‘인격’(persona)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얼굴’

(πρόσωπον, prosopon)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다 한다. 부버(Martin Buber)의 분류를 따르자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그것'(Ich und Es)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Ich und Du)의 관계다. '그것'은 혼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너'는 '얼굴과 얼굴'로 만나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은 신학적 명상과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인격적인 믿음, 감사, 찬양, 기도의 대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록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대면적이다.

물론 혼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면 예배라야 참 예배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오직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야지 결코 정상적인 것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예배보다 더 대면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다. '성도의 교제'는 사도신경에 들어 있을 만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다. 물론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사귀는 것 이상인 영적이고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러나 영적이라 하여 실제적인 만남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 독창보다 합창에서 우리는 더 크게 감격할 수 있고 함께 봉사해야 더 활발하고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다른 성도의 삶에서 자극과 교훈을 얻으며 다른 성도들의 감시와 격려로 신앙생활은 규모를 갖추고 힘을 얻는다. 성도는 가족과 같이 사랑 실천의 대상인 동시에 사랑의 주체다. 만약 교인들이 같이 모이지 않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지금까지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못지않게 성도의 교제는 '나와 그것' 아니라 원칙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로 이뤄지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대면적이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이고, 대면 관계가 사회형

성의 기본이다. 만약 대면 관계가 없었다면 우선 언어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언어가 없었다면 사고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비대면적인 접촉이 없지 않고 불가능하지도 않지만, 그것은 대면적 관계를 전제로 한 임시방편이고 예외일 뿐 결코 대면 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벌이나 개미의 집단적인 활동은 개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swarm intelligence). 사람도 대면해서 평화롭게 대화하고 활동하면 개개인이 가지지 못하거나 발휘하지 못한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 한다. 흔히 말하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도 대면적일 때 확실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교회에서는 지금의 비대면 관계를 '코로나 19' 때문에 생겨난 불가피한 비정상상으로 취급해야지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 비록 비대면 관계가 세상의 '뉴노멀'로 정착되더라도, 비록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결하겠지만, 교회는 끝까지 대면 교제의 정답과 멋진 섬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색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이는 일을 그만 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히 10:25)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6년 도산인상,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서울대 사회봉사상 수상.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뉴노멀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샬롬, 이번 호는 뉴노멀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주제로 꾸렸습니다. <시선>에선 코로나로 생겨난 뉴노멀이 가져온 새로운 풍조를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비대면 상황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있어 정상인 듯이 고착될 위험에 대해 경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집>에서 김태황 교수님은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이 맞물려 온라인 소비의 급증 현상의 장단점을 진단합니다. 소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소비자 주체성을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재확인하고 회복되어야 할 필요를 지적합니다. 김경민 대표님은 급변한 현실에 기민한 대응을 강조하는 경영 트렌드와 달리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는 기업이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음을 밝힙니다. 본질을 지키는 '래디컬'하되 비본질에서는 '애자일'한 유연성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최우성 박사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의 도래가 신앙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핍니다. 무조건 비판이나 외면이 아니라 바른 이해에 기초한 신앙의 도구로 사용할 성숙한 분별력을 갖출 것을 주문합니다.

김보경 교수님은 온라인 교육현장의 변화와 대처 방안을 살핍니다. 초연결시대에 맞게 핵심 지식만을 전달하고 학생 스스로 배워가도록 능동적 참여를 통한

실천적 지식을 얻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와 교회의 교육을 사랑의 연결을 통해 살릴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신영선 교수님은 극단 대표로서 예술가들의 현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이를 신앙적 비전으로 이겨내는 감동의 간증을 줍니다. 김영택 목사님은 전통적 신앙 양식, 다음 세대, 성도의 교제와 연합, 헌신된 일꾼의 총체적 위기를 말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새로운 목회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희망을 던져줍니다.

<사람 사이>에선 우리의 오랜 멘토이신 김정옥 교수님께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와 활동 경험을 나누어 줍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뉴노멀을 주문하고 기독교가 이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했고요. 피조물을 아끼며 돌봄과 보존도 강조합니다. 녹색교회 운동과 육식 절제, 식량 절약 운동에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를 권고합니다.

<섬김의 자리>의 김지원 교수님은 늘 묵묵히 여러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지난 아픔에 대한 소회도 밝혀 주었네요. 학술부회장으로 기독교 학문에 대한 관심과 헌신으로 섬기며 기독교 대학의 비전을 잊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가 다

시 활성화되길 소망합니다.

〈청년 시론〉에서는 윤현준 형제가 적정기술에 눈을 뜬 청년이 교수가 되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공학자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통한 공공선을 이룰 꿈을 나눕니다. 정성민 형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자신의 신앙 수준의 실체를 확인하고 삶의 예배 회복을 통한 기록한 삶을 이루려는 각오와 실천을 소개합니다. 동화작가인 김고은 자매는 작가로서 세워져 가는 여정에서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그의 간섭하심을 경험한 신앙 체험을 나누어줍니다. 최은미 자매는 언택트 시대의 상황이 오히려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세상과 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어 그 일에 기여할 비전을 갖은 교사로서 사명을 찾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추태화 교수님은 주인공이 인공지능을 통해 얻은 여자 친구 사만다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이 기계와는 불가능한 인격체의 신비한 활동임을 확인시켜주는 영화 〈HER〉를 소개합니다. 〈미술을 보다〉에서 서성록 교수님은 대세가 되어버린 온라인 가상전시의 실태를 분석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창작활동을 통해, 관계와 일상의 소중함 같은 기독교 핵심 가치를 창의적으로 풀어갈 소명을 나누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 작가들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책을 보다〉에서는 모두 5권의 책이 소개됩니다. 황윤민 교수님은 〈소득의 미래〉가 보여주는 뉴노멀 시대의 편중된 소득 구조의 냉혹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변혁적 영성임을 파악합니다. 유재홍 박사님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가 자산의 양극화와 불평등

의 심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가운데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돌볼 소명이 계속됨을 일깨워줍니다. 정창균교수님은 〈뉴 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에서 도전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저자들의 통찰을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석종준 선교사님은 뉴노멀에 관한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SBS 석학 초청 강좌를 펴낸 책을 평합니다. 웨슬리-황영철 목사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위한 미국 되찾기〉는 트럼프를 지지한 보수적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기독교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독교와 동일시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신앙을 공공의 영역에 끌어들이는 때 이데올로기화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며, 보편적 원리로 걸러낸 후 적용을 제안합니다.

백성은 간사님과 유재근 형제는 〈교회로〉에서는 하지만 알찬 서향교회의 ‘청년신학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청년신학아카데미’는 청년 사역의 실천적 신학을 함께 모색해가는 모임으로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온 사역입니다. 이상민 박사님은 자신의 논문 요약물 통해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은총을 거저 줌으로서 표현하는 삶의 모습이 소비 사회에 대한 대안임을 제시합니다. 이번 호를 위해서도 알찬 글들로 섬겨 주신 필진과 편집을 위해 애쓰신 귀한 헌신과 노고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뉴노멀 시대의 소비생활과 ‘소비자’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17년 94조 2천억 원 규모에서 2020년 159조 4천억 원 규모로 3년 만에 1.7배 증가했다. 2019년 온라인 수출 규모는 6조 원 규모로 전년 도에 대비해 1.7배가 되었다. ‘유로 모니터’(Euro Monitor)¹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매시장(B2C)이 전체 소매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4%에서 2020년 14.8%로 상승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B2C) 시장도 2016년 4천억 달러에서 연평균 27.3%가 증가하여 2020년엔 1조 달러로 5년 만에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대한비만학회가 올 3월 만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대비 체중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3킬로그램 이상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9일 한 사회관계망(SNS)에 올라온 ‘2주간 배달 음식 먹었을 때 나오는 플라스틱’이라는 제목의 사진과 글도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35개 배달 음식을 주문했고 100여 개에 이르는 빈 플라스틱 용기를 펼쳐 놓았더니 7-8평 규모의 원룸에서 침대를 제외한 공간의 절반을 차지했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와 소비 행위의 급속한 확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속화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되돌릴 수 없는 대세이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먹거리, 입을 거리, 주택과 금융 거래 등 모든 상거래를 24시간 어디서든지 휴대전화로 해결하게 되었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 결정권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 그 덕분에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편인 소비자는 더 머뭇거리거나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소비의 방식만이 아니라 소비생활에 대한 생각과 태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소비자는 왕’ 정도가 아니

1. ‘유로 모니터’(Euro Monitor)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글로벌 마켓 리서치 데이터베이스’로, 국내 및 해외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 현황, 소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라 가히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찾아온 ‘여호와와 사자’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 것 같다. 시간과 공간의 속박을 초월한 소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뉴노멀 시대의 소비생활의 흐름과 속도에는 ‘낮선 불안감’도 있지만 ‘흥미로운 역동성’도 있다. ‘탈대면’과 ‘연대감’의 프리즘으로 틈새를 들여다보자. 먼저 ‘탈대면’은 직접적인 접촉과 대면을 기피하는 방편 또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접촉과 대면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비대면’을 넘어 적극적인 자유를 대변한다. 상대가 있는 매장을 찾아가야 할 필요도 없고 시간에 맞춰야 할 필요도 없다. 다수 판매자와 유사 상품들의 브랜드, 품질, 성능, 디자인, 가격 등을 내 손바닥에서 동시에 비교하여 가장 바람직하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 어려우면 나의 생활방식과 습관적 선택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플랫폼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위임하면 된다. 그렇지만 ‘탈대면’이 인간 존재 자체를 기피하거나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탈대면’의 소비생활은 역설적으로 타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타인과의 ‘연대감’이 절실하다. 맛집이든 전자제품이든 관광명소이든 학습 프로그램이든 선행자의 소비와 방문 후기가 나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1인 방송으로 생중계도 한다. 과거 ‘입소문’과는 차원이 다르다.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해외 직접구매 또는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으로 소비의 상호성과 ‘연대감’은 타인 의존성을 높이고 자기 결정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광고성 정보와 선의의 정보를 분별해야 하는 자기 책임성도 보강되어야 한다. ‘영향력이 큰 특정한’(influencer)이 편향된 정보를 오남용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적 악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무한한 자유의 선택권과 소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소비 행위를 통한 대인관계의 변화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와 직결된다.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한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마 6:25).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소비생활의 초점이 목숨과 몸의 근원과 생존 원리에 집중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비생활과 대인관계의 변화에서 무엇을 인지할 수 있는가? 소비 행위에서 ‘무엇’과 ‘어떤’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 소비 주체성의 문제가 본질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소비에서 ‘소비자’를 찾아야 한다. 소비자의 주체성과 자존감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재확인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뉴노멀 시대에 소비 행위는 주변에서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다양해지고 차별적이고 급변할 것이다. 소비생활의 만족도와 빈부격차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도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빌 4:12)을 배우지 않고서는 일상에서 소비자의 정체성과 주권을 발휘하기 어렵다. ‘탈대면’과 ‘연대감’의 소비시대에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돌보는 역동적인 소비를 이끌어내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태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와 파리 제8대학(뱅센느대) 경제학 석사, 파리 제10대학(낭테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앙생활은 프랑스 유학 시절에 시작되었고, 기독교경제학회와 한국EU학회 학회장직을 수행했다. 2000년부터 기독교학문연구회에 참여하면서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실행위원장을 역임했다. 100주년기념교회 집사이다.

‘래디컬’과 ‘애자일’이 공존하는 시대

김경민 (가인지 컨설팅 그룹 대표)

지극히 본질적인 아이템을 현대적 감성으로 만들어라

외식 창업의 비즈니스 경구이다. 팔빙수나 설렁탕, 고깃집이나 분식이든지 외식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인 전통의 입맛에 맞는 아이템을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 성공 요인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가져온 우리 생활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이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외적인 쓰나미로 작동했다. 신앙생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며 보낸 시간이 이미 1년이 되었다. 온라인 예배나 전도의 정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모든 방면에서 변화의 속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프랑스의 속담 중에 “변할수록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도 ‘레트로’(retro, 복고) 감성은 대중적인 문화 코드로 자리잡고 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20-30년 전의 스타가 재등장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카페나 식당도 ‘레트로’ 컨셉이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여러 도전들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 현장을 컨설팅하다 보면 컨설턴트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다가 원래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변해야 할 것을 정하기 전에, 먼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라

기업 경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른바 ‘애자일’(Agile)¹ 경영과 ‘OKR’²은 최근 경영 트렌드가 되었다. ‘애자일’은 영어의 본래 의미처럼 빠르고 기민하게 이동하면서 피드백하며 경영하는 방식을 통칭한다. ‘OKR’ 역시 3개월 이하 단위로 목표와 핵심 결과를 규정하고 빠르게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한 성과관리 방법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영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 밸리 글로벌 기업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MZ 세대’³, 즉 밀레니얼 이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와 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들이 일터 현장의 주체로 합류하

1. ‘애자일’(Agile)의 정식 명칭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Agile software development)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폭포수(Waterfall) 방법론과는 달리 개발과 함께 즉시 피드백을 받아서 유동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2. ‘OKR’은 ‘목표 및 핵심 결과지표’(Objectives and key results)의 약자로서, 조직적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표 설정 프레임 작업이다.

3. ‘MZ 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면서, 이 세대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며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시대의 변화를 타려고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19’는 디지털화와 콘텐츠를 촉발하면서 마치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고장 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제어 불가능한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기업 경영에서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각광받고 있다. 이른바 기업의 존재 목적과 자신들의 본래의 고객가치에 집중하는 기업들이다.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인 ‘파타고니아’는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환경을 보호한다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소재의 확산과 중고제품의 보상판매,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옷을 사지 말라는 광고를 하면서 세계인들에게 자신들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열광 고객들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반대로 변화는 빠르지만 사명보다는 지배력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의 분노나 불매운동은 사업 철수로 이끌기도 하고, 심한 경우 브랜드가 없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능력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두 필요한 능력이다.

신약 성경 시대에도 이런 변화는 극심했던 것 같다. 세계사적인 변화를 맞이하던 로마의 전성기 시대에 바울은 로마서의 후반부에서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앙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롬 12:2, KJV). 지금은 소비의 시대이다. 무엇을 입고, 먹으며 어디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옳다. 너의 생각이 옳다. 너의 욕구도 옳다.” 그리스도인 경영자들도 기업 경영의 현장에서 수많은 유혹에 처해 있다. 가령, 약간 부풀리기만 하

면 수수할 것 같은 건적서 작성의 유혹이 있다. 협력업체에 조금만 압력을 넣으면 단가를 인하할 수도 있다. 직원들을 좀 더 압박하면 결과가 더 빨리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결국 다시 경영자 자신에게 파괴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단가 인하를 당한 파트너사는 품질 불량이나 서비스 저하로 답하게 되며, 야근을 거듭한 직원은 결국 사직서를 들고 “드릴 말씀 있는데요”라며 사장실 문을 두드린다.

나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40여 명의 젊은 세대들과 함께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일 자체가 예배이고, 섬김의 행위이다.” 경영 컨설팅 현장 역시 이 원리에 집중하고,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코로나 19’의 시대는 오래 갈 것이다. 극단적 ‘애자일’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극단적 ‘래디컬’(radical)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즉 복음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래디컬’을 갖자.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애자일’하게 변화하고 섬기는 다양성을 갖자. 그러면 우리와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이 찍어내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시대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풍성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경민

가인지 컨설팅 그룹 대표이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CBMC 중앙회 운영이사, 前 이랜드 그룹 인사총괄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그리스도인 기업가로서 저서로는 <성공의 숨겨진 비밀>, <피드백 전략수립 W모델>, <가인지 경영>, <공적 리더십> 등이 있다.

뉴노멀 시대, 인공지능(AI)과 공존하는 삶

최우성 (한전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는 기존과 다르게 변해가는 일상에 적응해야 하는 ‘뉴노멀’ 시대를 살게 되었다. ‘달라진 정상의 시대’로서의 ‘뉴노멀’ 시대에서 우리는 디지털 혁신의 상징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2021년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의 공존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고 메타버스가 확장되고 있는 이 뉴노멀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의 바둑 경기에서 승리한 알파고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딥러닝(deep learning)은 오늘날 ‘인공지능’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공신경망으로 인간 뇌의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모사한 수학적인 연산 시스템이고, 딥러닝 역시 인공신경망의 네트워크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딥러닝은 주로 음성인식, 영상 분석, 기계 번역 등에서 인간의 능력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가장 유명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중 하나인 ‘생성적 대립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이용해서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연구가 활발하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생성적 대립신경망’은 단순한 데이터 분류를 넘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조작하거나 새로운 것

을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유명한 설교나 기도문을 학습해서 더욱 멋진 설교문과 기도문을 생성할 수도 있다. 또한 문자 인식 후 음성과 영상 생성기법을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목회자가 찬양하고 설교하는 예배가 가능하다. 나아가 ‘메타버스’ 안에서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상상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 그리고 세계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과 같은 웹서비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캐’가 활동하는 가상의 공간을 뜻한다.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처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MZ 세대’²⁾의 출현,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

1. ‘부캐’는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행동하는 부캐릭터로서,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원래 키우던 캐릭터나 계정(본캐) 외에 새롭게 만든 캐릭터와 계정을 말한다.

2. ‘MZ 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면 문화의 본격화 등으로 메타버스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달리 시공간(時空間)을 초월한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속해 있는 물리적 현실 세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의 예배와 소모임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에서는 비대면으로 인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배가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메타버스란 가상세계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어, '코로나 19'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형태의 대면 예배로의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한 희미해진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우는 새로운 형태의 21세기 바벨론 왕국이 세워질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캐'가 있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의 삶이 아니라, 단지 '선데이 그리스도인'(Sunday Christian)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 쉬운, 즉 실상은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라는 메타버스에서 이미 '부캐'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세 세상 역시 욕망으로 가득한 또 하나의 세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메타버스로 확장되는 것이기에, 뉴노멀 시대 우리가 접해야 할 상황들은 인간의 욕망으로 설계된 것으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성령과의 교통이 없이 오직 인간이 정해주는 참과 거짓으로부터 학습하기 때문에 참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오직 인간의 프로그래밍으로 설계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의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최선의 공존방안은 무엇일까? 엑셀 소프트웨어(SW)가 사람이 했던 연산 작업을 돕

고 있지만, 다행히 문제를 정의하고 결과에 대한 통찰적 사고와 활용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다.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역시 우리 삶의 일부 영역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인간과 공존하면서 일관되게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공학자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속해 있는 전문 영역, 즉 도메인(domain)에서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예배와 삶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다. 따라서 무조건 비판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제대로 이해하고 예배의 도구로, 성도 간 교제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과 거룩을 행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래야 한다. 성전 보수 중 성경을 발견하고 참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 만민제사장을 외치며 '오직 성서'로 돌아가자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와 같이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의 또 다른 종교개혁을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깨어서, 현실 세계 뿐만 아니라 무한히 확장된 가상세계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우성

한전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시스템 건전성 평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상에 기여하는 공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연구원이지만 기술보다는 사람을 생각한다. 대덕 연구단지 인공지능(AI) 연구자 모임 AiFrenz 운영진으로 활동 중이다. 대덕 한빛교회 집사이다.

축복의 파이프라인에서 사랑의 플랫폼으로

김보경 (전주대 교육학과 교수)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수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강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일 년 넘게 누적된 경험들이 능숙함의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한 가지가 있다. 온라인 수업 대부분이 교실 수업을 그대로 옮겨와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교육환경이 온라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교실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교육을 하고 누가 잘했는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은 극도로 개인화되어 있어 학생의 학습 시간, 학습량, 학습 수준을 교수자가 통제하기 힘들다. 어느 물리 교사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15분짜리 강의 영상을 탑재하였다. 어떤 학생은 15분간 학습한 후 종료한다. 어떤 학생은 재생과 멈춤 버튼을 클릭하며 꼼꼼하게 반복해서 학습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 1시간을 넘게 학습한다. 어떤 학생은 영상을 틀어두고 SNS를 하면서 딴짓을 한다. 이는 온라인 수업을 교실 수업과 동일하게 설계할 때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온라인은 학생의 흥미와 역량에 맞춰 수준과 양을 다르게 이수하는 유연성 발휘가 쉽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은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쉽다. 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 내 강의만 들을 필요는 없다.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개론>을 가르치는 칼리

크라우치(Carly Crouch) 교수는 3주차 강의에서 크리스토퍼 헤이즈(Christopher B. Hays) 교수의 <출애굽 : 역사와 이야기>(Exodus : History and Story) 강의 영상을 탑재하고 자신보다 폭넓은 관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은 교실 안에서 만리장성을 걸어보며 진시황제가 북방 오랑캐의 국경 침범을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은 조직과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을 오가는 플랫폼과 같다. 이러한 온라인의 탈경계성과 개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이 경험과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할 때 비로소 온라인 수업이 교실 수업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결의 학습

학습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가 미덕인 시대에는 교과서를 장기기억에 저장하는 공부를 했다. 초연결 시대에는 핵심 지식만 체득하고, 나머지는 외부기억 장치와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즉 학습은 새롭고 가치 있는 연결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르치는 방식도 일방적 지식 전달을 최소화하도록 바뀌고 있다. 학생들은 교수의 지식을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곳을 이미 알고 있다. 혁신적인 온라인 대학으로 평가되는 미네르

바 스쿨의 수업에서 교수가 5분 이상 연속으로 말하면 경고음이 들리고 10분이 넘으면 마이크가 꺼진다. 대신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의 75% 이상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독특한 관점으로 다양한 지식을 창의적으로 연결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사랑의 플랫폼

삶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연결주의 학습은 큰 기회다. 기독교 정신의 정수인 사랑이 바로 그분과 나의 연결, 이웃과 나와 연결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사랑하면 연결되고 싶어진다. 기독교의 사랑은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연결로 세 겹층처럼 강하다. 과거 교회는 '축복의 통로'로서 흘러보낼 것들을 준비하느라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못했다. 이제 교회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과 가까이 헌신코자 하는 이들을 교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결해 줄 수 있다. 베트남어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베트남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과 연결된다. 교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은 플랫폼에서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다.

유튜버가 할 수 없는 일

수업 컨설팅을 해보면 우리나라 교수들은 설명력이 뛰어나고 많은 지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열정적으로 강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중 입을 여는 학생은 몇 안된다. 대부분 교수가 던진 질문에 간략하게 답하는 형태이다. 축복의 파이프라인은 굵고 튼튼하나 교육적 소통과 상호작용은 미미하다. 아무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해도 변하지 않던 교수자 중심 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에서도 지속될까 두렵다. 교수는 지식전달자에서 학생의 발표

와 과제에 대해 세심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데 힘써야 한다.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 즉 핵심 지식의 체득을 도와야 한다. 이는 유명 유튜버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교회도 예배, 성경 공부, 각종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옮기기만 하면 안된다. 말이 넘치는 시대에 진리를 외치되 열 마디를 영혼을 울리는 한마디로 줄여 말해야 한다. 나머지 아홉 마디는 마을을 두루 다니며 아픈 이들을 만나신 예수처럼 성도의 일상과 세상의 고통을 경청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교회에서는 비슷한 설교 영상을 중복 생산할 것이 아니라 교회 간 자원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타 교회 설교 영상을 성경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일상에서 말씀이 특별한 사건이 되고 좋은 습관으로 실현되는 것을 도와야 한다. 학교와 교회가 파이프라인에서 플랫폼이 되어 학생과 성도들의 생각을 공유하여 그들과 사랑과 공의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데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무너진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새롭게 평가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보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학교수업 설계를 위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이 있다. 현재 대전 산성교회 집사로 부목회교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예술이나 돈이나

신영선 (극작가 및 연출가)



“아, 요즘 힘들지?”

공연을 끝낸 지 넉 달이나 지난 어느 금요일 밤에 걸려온 전화였다. 연극연출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사업을 택한 사람, 내 첫 연출작의 배우와 스태프들을 위해 30만 원어치 정도의 고기를 산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아직 연극을 하는 것이 고맙고 연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적자가 없기를 바라는 내 희망에는 분노했다. 나는 원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돈 문제로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30만 원어치라고 생각되는 주정을 들어준 뒤 상냥하게(?) 통화를 종결지었다. 그가 운영하던 이벤트 업체가 폐업했거나 위기에 처한 게 아닐까. 오래전 꿈에 미련이 남았을 수도 있다. 자신보다 더 힘들 것이 분명한 사람을 찾아서 상대적인 위안을 얻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상대를 잘못 선택한 그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20세기 이후 연극은 언제나 사양 산업이었고 내 처지가 특별히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중 잣대에

부딪힌다. 명목상으로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들의 숙련 노동에 대한 인건비는 누구도 지불하지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하여 부업을 하는 동안 평생을 갈고 닦고 고민해도 모자란 전문기술과 작업의 영역은 점점 멀어진다. 어렵게 만든 작품의 질은 떨어지고 관객은 더욱 연극을 볼 동기를 잃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나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 예술적 이상이나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출연자와 스태프들의 사례비에 우선순위를 두되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분배할 것. 사비를 제작비로 쓰지 않을 것. 불가능해 보였지만 나는 몇 년간 그 원칙을 지켰다. 아니, 위로부터 지킴을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돈을 써야 하는 일에 스스로의 노동력을 갈아 넣긴 했지만 나를 선방이라 자부했다. 그러나 몇 달 전 공공기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가 무대에 올라가던 날,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가 되었고 예약취소와 환불 요구가 잇따랐다. 관객

이 다섯 명인 날도 있었고 주말에도 30명을 넘기지 못 했다. 이리저리 노력해보았지만 결국 수백만 원의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코로나 시국 자영업자의 손해치고는 매우 약소하다. 그러나 “주의 손이 코로나에 걸려 짧아졌는가?”라고 반문답처럼 자문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는 사람이고, 직원이 하나도 없는 면세사업자(및 극단)의 대표이며, 평생 기독교 연극을 하겠다고 서원한 순진해빠진 모태 신앙인이었다. 몇몇 선교단체와 단기선교 경험에서 “주를 신뢰하면 나 하나는 굶어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밀어붙인 일이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딱 죽지 않을 만큼’이다. 지금도 딱히 노후를 염려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작가가 가장 힘이 있는 장르는 TV 드라마지만 고지식한 그리스도인인 나는 대중의 취향에 맞출 능력이 없다.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자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신 예수는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담은 뭔가를 만들라고 돈을 주는 곳은 없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은 관객들은 눈이 높아졌고 그들을 만족시킬만한 멋진 것들은 상당한 제작비를 들여야 만들 수 있다. 기독교 계통에서 제작비를 덜 자금이 있는 기관들은 자신들의 행사를 그럴싸하게 꾸며주고 그들의 업적이나 이념을 선전해주길 바란다. ‘예술’ 영역에서 가장 미묘한 부분이 이 지점인데 예술가가 고민한 바를 형상화한 ‘작업’과 클라이언트의 욕망을 구현한 ‘선전’의 경계선이다. 그런 면에서 월급 받으며 매주 교회 칸타타를 찍어낸 바흐는 행복한 노동자였다. 바흐의 교회음악은 루터교회의 ‘선전’이자 최상급의 종교예술이니 그의 천부적 재능과 엄청난 노동량을 감안하더라도 21세기의 ‘그리스도인+연

극인’보다는 훨씬 나은 처지가 아닌가. 내게는 극소수 개인 외에 작업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룹이 없다. 자본과 권력과 신념이 일치할 수 있었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어떤 일이 ‘업’이 되려면 그것을 사 주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신념과 이상에 동의하는 이들의 그룹이 ‘후원’하는 영역 역시 시장이다. 현대의 친절한 후원자들은 과거의 귀족과 종교 권력이라는 의뢰인보다는 부드럽지만 불특정다수인 그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한 줄타기를 요한다.

사방이 막힌 뒤 올려다볼 곳은 하늘뿐인가 싶다가도 그 역시 종교로의 도피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 기적은 희귀하며 있다 해도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온갖 번잡한 일을 잠시 멈추고 듣는 일로 돌아간다. 우리 시대의 고통과 갈망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이로 더 모호하게 들려오는 ‘다른’ 목소리를 구분해내려 신경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안에 있으나 오래 듣고 있으면 분명히 구분되는 목소리. 듣는 이가 현실을 거슬러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는 그 목소리. 우리 시대의 결핍과 ‘다른’ 목소리가 교차하는 지점이 믿는 사람이 일하는 자리이다. 언어를 찾고 형태를 만드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다음 작업은 적자 없이 언어와 형태를 갖추어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신영선

극작가 및 연출가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동(同)대학원에서 러시아 문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와 총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이다. 제6회 옥랑회극상, 제32회 기독교문화대상, 제12회와 제13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창작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레르문토프 희곡전집>을 번역했으며 <퇴근길 인문학 수업: 연결 편>의 한 부분을 맡아 집필했다.

뉴노멀 시대의 목회적 위기와 희망에 대하여

김영택 (삼성교회 담임목사)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빛나는 존재들이었다. 2세기의 안토니우스 역병, 중세의 흑사병 등 여러 질병들이 인류를 강타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타인을 향한 돌봄과 헌신적 섬김을 통해 이교도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전염병이 끝난 뒤 기독교는 오히려 크게 부흥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현재의 고통을 넘어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코로나 19’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19’의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상의 기준, 즉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더 높은 고급 차원에서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교회는 뉴노멀 시대에 더 빛나는 공동체로,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 진통을 감내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

은 뉴노멀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위기는 무엇인가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도전과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한다. 필자는 지역교회의 목회자로서 뉴노멀 시대의 목회적 위기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한국의 지역교회들은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까?

첫째, 전통적 신앙 양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주일’과 ‘예배당’은 전통적 신앙 안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신앙 양식의 키워드였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도입으로 예배의 장소가 절대적 양식에서 상대적 양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도전받게 되었다.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는 뉴노멀 시대의 예배를 해석할 수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게 되었다. 둘째, 다음 세대의 위기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거의 1년 반 가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인격이 형성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성도의 교제와 연합의 위기이다. 점심 식사, 소그룹 모임 등 성도의 친교의 채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연합의 끈이 느슨해지고 있다.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영적, 정서적

외로움과 갈급함을 토로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넷째, 헌신된 일꾼들의 위기이다.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바로 귀가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의 손길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러한 위기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그중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 ‘코로나 19’는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었다. 사회적 관계망이 느슨해지며 홀로 지내는 물리적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분주하게 지내던 때는 반추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특별히,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 19’의 방역수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성찰을 위한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둘째, 전통적 방식이 아닌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성전예배만을 고집하지 않고, 온라인 방송시설을 갖추고 실시간 혹은 녹화 방송을 통해 대안적 예배 방식을 찾고 있다. 성도 양육과 소통의 측면에서는 줌(zoom)을 통한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리고 있다. 필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당회, 기관장 회의, 각 기관별 기도회, 교역자 회의 등 거의 모든 소통을 줌으로 하면서 성도들의 교제와 소통의 새로운 장을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주일학교는 줌 목회를 통해 먼 거리로 이사 간 어린이들까지도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다. 목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심방 사역도 각종 SNS를 활용한 비대면 심방과 ‘문고리 심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역의 패러다임을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지역교회들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목회적 영역을 개척하며 기회를 찾고 있다. 이러한 목회적 대안들은 시대적 흐름에의 타협과 순응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적 적용이다.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예배)과 ‘이웃 사랑’(사회적 책임)이 상호 갈등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알마든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 희망과 용기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두신 ‘웨리트’, 즉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잘려나가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땅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뉴노멀 시대의 하나님의 그루터기, 즉 희망이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영택



성남 삼성교회(예성) 담임목사이다. 성결대학교 신학과 학부(B.A.), 미국 아주사퍼시픽대 신학대학원(M.Div.),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석사과정(Th.M.), 드루대학교 조직신학 박사과정(Ph.D.)을 졸업했다. 귀국 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나사렛대학교에서 강의하였으며 현재 성결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웨슬리학회 총무로도 섬기고 있다.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최근 많은 이들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전 세계가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야기된 이 특별한 역사적 계기는 환경과 기후 문제 및 생태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기후 전문가이자 생태 전문가이신 김정욱 교수님(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前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을 모시고 뉴노멀 시대 문제의 본질과 우리 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또는 대응이 무엇일지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일시 & 장소 2021년 4월 27일(화), AM. 10:00. 서울대 사범대(10동) 409호(세미나실)
인터뷰어 박동열 (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정리 & 사진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박동열 교수님, 최근 여러 학자들이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 다시 말해서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비대면 강의, 학생들과 새로운 만남의 방식에 적응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동의하시는지요.

김정욱 ‘뉴노멀 시대’라는 말,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이 ‘코로나 19’ 이전과 크게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나 앞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즉 에이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돼지열병 등이 지난 반세기 동

안 약 80여 가지나 돌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19’가 진정된다고 해서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야생에 있는 바이러스는 약 8백만 종이 나 되거든요. 또 ‘코로나 19’ 때문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 같은 대단한 나라들도 경제성장률이 약 10% 정도나 감소했는데요. 심각하지요.

그러나 제가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큰 과제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만 하더라도 홍수, 태풍 등 피해가 엄청났지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는 단지 ‘코로나 19’에만 관계된 의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든 지금까지 살았

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저
는 뉴노멀 시대 개막을 여러 차원에서 보고, 인류는
이제 반드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으
로 이해합니다.

박동열 우리 시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환경 전문가들은 그 원
인을 특별히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 때
문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진단의 의미가 무엇
인지 교수님께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옥 기후 변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만 더 올라가면 큰 문제가 생겨
서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2℃가 올라
가면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고 바다의 산호초가 전멸
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몇십억, 기후난
민도 몇억 명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인가 예
멘 난민이 백 명 정도 오니까 난리가 났지요. 못 받아
들이겠다고. 수억 명의 난민이 동시에 생기면 감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에서 정
하기를 1.5℃로 낮추어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가 하나도 나와선 안 된다
는 겁니다. 모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
립’ 같은 것이지요. ‘탄소 중립’이 앞으로 인류가 살길
이라는 것이고, 인류는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
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
면, 지금까지와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도 바뀌 나
가야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것을 뉴노멀로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박동열 우리가 이러한 뉴노멀 시대를 살게 되었다면, 이제 그
에 따른 구체적 의식 전환과 생활양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
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옥 생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령 현재 우리 한
국 사람이 보통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안 되지요. 자기
몸무게의 수천 배의 자원을 쓰고, 수천 배의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낭비
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쓰는 에너지가, 우리보다
몸무게가 천 배 이천 배 무거운 고래가 일 년 동안 세
계를 돌아다니는 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변
화가 있으려면 모두 의식이 변하고 힘도 합해야 합니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자원 아끼
고, 에너지 아끼고 하는 거. 그게 정부 정책이 따라가
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책이 만
들어지도록 국민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인식
을 바꾸고 협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에 교회가 참 많고 신도들이 많은데 교회들만 정신을
차리고 해 줘도 분명히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
을 해 오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것은 자원을 아끼고 절
약하는 일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 개신교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면 좋겠는데요. 이것
은 기독교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지금 기독교에 독
이 너무 많이 퍼져있지 않나 해요. 기독교가 중요하고
좋으니까 마치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계모가 독
을 가장 맛있는 사과에 넣었듯이, 사탄이 여기다가 독
을 푼 것은 아닌가, 어서 빨리, 해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동열 우리 인간은 성경이 말씀하는, 즉 하나님께서 창조
한 세상에서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었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
으로 무엇을 반성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시
는지요.

김정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가꾸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없었던 것이 큰 문제였

거든요. 베이컨(Francis Bacon)이 했던 말, 인간은 자연을 원하는 대로 복종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장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미국에서 조사하니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연을 우리 이용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본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중세 때 저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Maimonides)가 바르게 이야기했듯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그 자체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지 다른 피조물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아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주인이라 하지 않고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나그네면 나그네답게 잠시 허락받은 것을 깨끗하게 잘 쓰고 보존해야 하지요.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고, 하나님이 정성 들여 만든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열 교수님께서서는 우리나라 기독교 환경운동 영역의 오랜 리더이시고, 오랫동안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로 활동을 하셨지요?

김정욱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녹색교회라는 운동을 하는데 저도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도 서로 나누고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할 일도 많이 있잖습니까? 특히, 지방에 가면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지역의 자원순환과 에너지 보급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에너지 절약과 물건 나눔을 실천한다든지, 농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다든지, 직거래로 좋은 먹거리를 바로 먹는 운동을 한다

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 절전소를 만드는데 각 가정마다 전기를 얼마를 줄여 썼고 써내고요. 아직 함께하는 교회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형교회는 드물고 주로 작은 교회들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잘하는 교회에는 ‘녹색교회’라는 명칭을 줍니다. 그냥 하겠다 하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하지요.

박동열 그동안 환경운동을 섬겨오시면서, 보람과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정욱 보람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고요. 하고 싶은 일, 누구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부의 기후 정책을 세우는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죠. 지난 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요. 저처럼 환경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협박받는다는 말도 듣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옳다고 소신있게 생각하는 일에 방관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은 더 어렵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문에 저는 그 어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보다는 쉬웠다고 말하고 싶네요.

박동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뉴노멀 시대에 건강하게 사는 멋진 시민 또는 그리스도인 상(像)은 어떤 것일까요?

김정욱 우리 시대 건강한 분들은 우선 너무 편하게 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 편함을 추구하다 ‘코로나 19’ 같은 팬데믹 감염병을 만났습니다. 또 고기 섭취를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현재 전 세계는 큰 동물들, 고기 동물만 거의 살고 있어요. 닭이 약 200억 마리, 소, 돼지, 양 이런 것들이 각각 10억 마리씩 되거든요. 야생동물은 많아야 100만 마리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동물을 아주 좁은 땅에 가두다 보니 병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사료에 섞고, 면역이 약해지니까 조류독감, 돼지열병, 돼지콜레라 이런 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병든 돼지를 죽이는 것은 그 병이 사람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음식을 아끼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식량을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농사지는 식량 가운데 4분의 1을 먹지도 않고 버립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가축들에게 먹이는 사료로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고, 이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회 차원에서는 지역 사회와는 재생 에너지 만들기, 물건 서로 교환해서 쓰기 등을 협력하고, 농촌과는 직거래를 통해 수확한 것을 바르게 유통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박동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 큰 어른으로서 이 뉴노멀 시대를 지혜롭게 감당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한 마디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욱 뉴노멀 시대는 삶이나 직장 구조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큰 직장에 매달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테니 힘을 내라는 말, 또 '기학연'(기독교학문연구회)도 보니까 젊었을 때 현실보다는 이상을 붙들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모였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은 성취하게 된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단지 직장을 얻고 취직만을 하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뭔가 일을 직접 만들거나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면 좋겠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기본소득 제도 같은 것을 통 크게 제대로 시행해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그거 받아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본소득, 그거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 매달려 살겠어요. . FAITH & LIFE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동역자입니다

김지원 (백석대 보건학부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지난주에 한 학생이 약속도 잡지 않고 갑자기 연구실 문을 열고 “교수님 어떻게 해요?”라고 울먹이며 들어왔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말을 잊지 못하는 학생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보았다. 자세한 사항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19’ 상황으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못하게 되어 갑자기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실습지를 변경하게 되어 벌어진 일이었다. 병원 실습을 담당한 동료 교수도 갑작스러운 실습 불가 통보에 급하게 실습병원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였다. 나도 여러 곳에 전화해보았으나 ‘코로나 19’로 실습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를 한 후에, 몇 군데 더 전화해보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학생을 돌려보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코로나 19’와 관련은 없지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도 지난 몇 년간 내홍의 어려움을 겪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나는 십여 년 전 동료 교수인 최태연 교수님의 소개로 동역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동역회에서 내가 어떤 일로 섬겼다가보다는 섬김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것이 많다. 세상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했고, 동역회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하는 분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위로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몇 년 전 동역회 내의 집안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동역회가 무슨 세계관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자괴감으로 떠나려는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다. 한때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으나, 나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나는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집안에서 자랐고, 한 척수손상 환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 임용되어 처음으로 기독

교 세계관과 기독교 학문에 대하여 듣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보건학부에서 교수의 일과 함께 '기독교대학실천원'이란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동역회와도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럴 능력도 없다. 그저 귀한 동역자들이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작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섬기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지금 실행위원과 기독교 학문연구회 학술부회장으로 섬기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섬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다. '기독교대학실천원'에서 근무하며 기독교 대학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였던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동역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 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동역회에 새롭게 바라는 점과 기도 제목을 나누려 한다.

현재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 두 단체가 하나로 합친 것이다. 두 단체가 하나로 합쳐진 후, 동역회가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어느 정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의 역할을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여러 여건들을 고려할 때 새롭게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일은 어렵겠지만,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던 취지를 살려 새롭게 동역할 분야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일은 기존의 기독교 대학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역회가 돕는 역할이다. 지난 몇 년간 국내의 기독교 대학들은 각종 대학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

는 과정에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보다는 생존에 급급해하는 상황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어 올해 입시에는 많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부 교회와 목사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은 기독교 대학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동역회가 기독교 대학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촉매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2002년 한동대학교,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였던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가 2015년 7회 학술대회 이후로 중단된 상태이다. 위기의 시기에 더욱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 동역회가 흠어져 있는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을 하나로 모으고 협력하여 기독교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참, 여학생의 병원 실습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다. 우리 동역회 회원들과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협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지원

백석대 보건학부 교수이다. 연세대에서 재활학을 전공하였고, 해부학 교실에서 근무하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회사일로 바쁜 중에서도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아내와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기독교학문학회 부회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는 삶: 어느 청년 공학자의 비전

윤현준 (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主)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으로 설교했듯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골 1:15-20)께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삶의 ‘전(全) 영역’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영역에 있어,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삶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학문을 대하는 기독교의 태도에는 양극단이 존재했는데, 영지주의적(gnostic) 이원론에 갇혀 학문을 속(俗)하다고 여기거나, 세상과 구별됨 없이 학문을 기복신앙적 성공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요 8:32)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사실과 명제가 일치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결속하여 얻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학자가 추구하는 진리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타락한 인간의 문화적 산물(전공 영역)을 정화하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고등학생 때 과학 교과목 중에 물리를 좋아했

는데, 특히 힘과 운동을 다루는 역학(力學, mechanics) 단원에 큰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호기심에 기초해 현상을 탐구하는 순수학문보다는, 축적된 지식 체계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응용학문을 선호해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배워서 남 주자”는 비전은 품었으나 구체적인 소명의 자리가 어딘지 막연했던 2008년 여름, ‘크리스천 과학기술인 포럼’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 설계 아카데미’에 우연히 참가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접하게 됐다. 공학 주도의 산업혁명이 시대를 혁신했으나 부작용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을 초래했다면, 다시금 지식을 공유해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는 회복의 걸음이었다. 이는 지적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학문 청지기로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계기가 됐고,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캠퍼스였다. 이제는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는 청년 공학자로서 견고 싶은 삶의 기대를 나누려 한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다. 공학자(engineer)라는 용어는 14세기에 엔진(engine)에서 유래했으며, 엔진의 어원은 발명의 재주 및 영리함을 뜻하는 라틴어 잉게니움(ingenium)이다. 따라서 공학은 새로운 도구를 창조함으로써 삶의 지평을 넓혀



온 고군분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학적 창조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가진 특별한 존재(창 1:27)이기에 가능하다. ‘무(無)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주어진 재료로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영감(靈感)을 인간에게도 허락하신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출 3:14)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초대하신 것 자체가 은혜이다.

둘째, 왜곡된 공학의 원형(原形)을 회복하는 삶이다. 세상은 ‘최소 비용-최대 이윤’이 공학의 가치라고 가르치고, 불멸과 신성(神性)을 지향하는 기술의 바벨탑을 쌓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한 하늘에 닿을 듯이 높게 올라가는 나무처럼 성취와 견고함을 숭상하는 자기애(自己愛)적 공학을 거부하고(단 4:1-18), 재물(mammon)이 지배하는 억압과 착취의 공학이 아닌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공학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렘 22:1-12).

셋째,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일반 은총’(common grace)을 드러내는 삶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등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증언하신다(마 5:45). 공학은 제품 개발 및 사회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섬기는 사랑의 유통이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에서 ‘경작하다’의 히브리어 아바드(עבד)는 영어로 일하다(work), 섬기다(service), 예배하다(worship) 등을 뜻하며, ‘지키다’의 사마르(שמר)는 유지하다(keep), 주시하다(watch), 보존하다(preserve) 등을 뜻한다. 즉,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공학자의 삶이란, 학문하는 ‘일’을 통해 자연의 질서(예: 물리법칙)가 담긴 지식 체계를 ‘보존’하고, 새로운 도구를 ‘창조’해 동시대 이웃을 ‘섬기며’, 친환경 기술로 자원을 ‘유지’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삶이다.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에 순종(창 1:28)해 공학 영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공공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신 6:5, 마 22:37) 이웃을 사랑하는(레 19:18, 마 22:39)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공학자가 되길 갈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윤준준

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이다. 서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미국 조지아공과대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서울 정릉교회(예장 통합) 청년이며,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공학 영역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마6:10) 역사에 참여하는 증인의 삶을 꿈꾼다.

뉴노멀 시대, 어느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

정성민 (메트라이프 부지점장)



2016년 3월, 5,000년의 바둑 역사를 가진 인류는 인공지능(AI) ‘알파고’에게 패했다. 그런데 그 ‘알파고’는 6개월 뒤 창고로 들어간다. 새로 만들어진 ‘알파고 제로’가 바둑 독학 30일 만에 ‘알파고’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불과 몇 개월 만에 ‘알파고 제로’도 창고 신세를 지게 된다. 새로 만들어진 ‘알파 제로’가 바둑 독학 3시간 만에 ‘알파고 제로’를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류의 발전 속도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이 와중에 ‘코로나 19’ 사태라는 기름이 부어지고, 불과 1년 만에 우리 삶의 표준(normal)은 크게 변해버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표준도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어땠을까? 나는 대학생 때 CCC(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가천대 대표 순장을,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과 초등부 교사로 봉사했었다. 그 당시 나의 일상은 예배와 교회 공동체 모임의 연속이었는데, 이는 대학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신앙 표준이었다. 주일에는 초등부 교사와 청년부 회장, 화요일에는 CCC 캠퍼스 모임 섬김, 수요일에는 교회 수요일예배와 청년부 리더 모임 참석, 목요일에는 CCC 지부 채플, 금요일에는 섬기는 교회 금요일예배, 토요일에는 청년부 토요일기도회에 참여했었다. 이렇게 당시 나의 신앙을 검증하는 표준은 교회

와 선교단체의 시스템 안에 있는 예배와 봉사였다. 많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듬북 받으며 신장생활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나는 과연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던 것일까?

작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내 신앙의 수준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지 불과 2주 만에, 나는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늦잠을 잤고 속옷 바람으로 침대에 몸을 기대어 예배를 드렸다. 군 복무 시절 예배가 없던 곳에서 예배를 세울 만큼 스스로 신앙을 자부했던 나였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감당하는 내 신앙 수준의 실체는 처참했다. 다만, 그 와중에 위안이 된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19’를 통해 교회 시스템에 잘 포장된 듯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신 것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신앙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을까?

나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예배란 단지 교회의 ‘공적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로서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나는 이 생각의 성경적 근거를 사도행전에서 찾았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사도 행전 8:1).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사도행전 8:4).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셨다. 믿는 자들이 늘어가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초대교회에서였다. 하나님은 심지어 스테반 집사께서 순교하는 큰 박해를 통해서 교회들이 흩어지게 하셨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렇다면 ‘삶으로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과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무엇을 하는 중이었는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예배드리던 중’이었을 것이다.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 역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그렇게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학교, 직장, 동교회, 가족 등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성전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물 대장에 교회로 기록된 건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 우리 모임을 교회라고 하시며, 세상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표준(normal)은 건물 대장에 교회라고 기록된 건물 안에서만 모여, 각자의 신앙 수준을 가늠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었을까? 즉, 세상 속에서조차 ‘구별된

신앙’이 아니라, 단지 세상과 ‘분리된 신앙’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디모데전서 4:5).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1명이나 2명이 한 행동을 반복하면 별 영향이 없지만, 3명이 한 행동을 반복하면 모든 사람이 그 행동을 따라 한다는 것이다.

나는 2017년부터 SNS에 묵상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함께 할 2명의 동역자를 만나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말이다. 나의 결론은 이렇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신앙의 표준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지, 비대면으로 드릴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떤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지 등으로 가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표준은 오직 삶 전체로서의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복음을 들고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별되게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도한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온 땅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정성민

미국계 생명보험회사 메트라이프에서 부지점장이다. 가천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가천대 CCC(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순장, 성남제일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다. 현재 같은 교회 청년부 리더와 초등부 교사를 맡고 있다. 묵상으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명을 가진 모임 ‘나하목’ 대표이다.

빛의 여로를 향해 가는 삶

김고은 (동화작가)

나는 어릴 때부터 줄곧 내 삶을 해석하고 싶었고, 해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문학을 만났고, 펜을 들기 시작했다. 릴케(Rainer Maria Rilke)의 말처럼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깊숙한 느낌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한 사유의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너는 꼭 작가가 될 거야”하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한 말에는 힘이 있어서 때때로 스스로의 마음이 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법이라 그렇게 글을 쓰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러나 작가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다. 대학 졸업 후 우연히 만난 어린 친구로 인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어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다.

당시에는 미세먼지가 무척 심각해 어린 친구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시행 되었고, 공공기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였다. 내가 당시 근무하던 기관에도 이러한 제도에 발맞추어 건물 전체에 넝쿨 식물을 심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매일 나는 아이들과 지내며 창문 너머로 설치된 그물망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까지 직장에 혼자 남아 있게 되었다. 혼자 교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때였다.

어디선가 문장이 내게 두박두박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글이 차고 넘칠 때까지 그냥 두어라”라고 말씀하셨던 대학 시절 교수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연단을 통해 내 안에 글이 차오르도록 하셨던 것이다.

그날 밤,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처럼 쓰고 있는 글이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었고, 어떤 글이 될지 예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게 쏟아지는 글이 활자로 나타났을 때, 나는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을 알게 되어 원고를 투고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작은 기대감조차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때문에 나는 공모전 투고 후 오래전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으로 생각하자고 마음을 다독이곤 했다. 스토리 공모대전은 3개월에 걸친 세 번의 심사 과정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원고를 투고하고 내 안에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아프게 찌르기 시작했고, 나는 연약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상한 갈대도 꺾



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신가요?” 나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어깨를 두드리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고은아, 너 왜 고개를 숙이고 있니?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고개 숙이지 말고 이제 일어나렴.”

그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심사받는 기간 동안 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로 작정했다. 그때를 기점으로 시간을 정해 골방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선교사님의 유명한 이야기도 듣게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 말들은 내 마음을 열어주었고, 확신을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자 나의 모든 문제와 이유를 넘어서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9년 스토리 공모 대전에서 미세먼지를 주

제로 한 환경 동화 <잠시, 후>라는 작품으로 ‘청년 작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마주보는 연습을 하도록 인도하셨다. 더욱이 동화를 쓰기 위해서는 교만함이 아닌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무릎을 굽혀 낮아져야 함을 깨닫게 하셨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동화를 집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두 번째 동화 <나의 바다>가 출간되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글’이라는 선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의 글이 예배가 되어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길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고은

동화작가이다. 송의여자대학교 미디어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0년간 아이들의 동심 속에 거닐다가, 지금은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 아이들의 동심을 표현하고자 발이 닿는 어느 곳에든지 멈춰 글을 쓰고 있다. ‘2019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에서 <잠시, 후>로 ‘청년 작가상’을 수상했고, 최근 <나의 바다>를 출간했다. 성남 삼성교회 청년이며, 유아부 교사이다.

언택트(Untact) 시대의 소통의 장을 꿈꾸며

최은미 (밀알두레학교 소명 교사)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만남’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 보는 만남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에서 함께 접속하는 의미로 변해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된 소통을 방해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껏 함께 만날 수 있었던 지난날을 그리워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은 무엇보다 만남과 소통이 중요하기에,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교사와 아이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언택트(Untact)¹ 시대에 콘택트(contact)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우리는 함께 다양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²을 찾아 사용 방법을 익히고, 활용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소통하며 만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 노력을 통해 평소 대면할 때에는 소극적이어서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지 않던 아이도 온라인 환경에서는 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대면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아이들의 소리를 균등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 19’가 본격화한 지 14개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소통이 대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코로나 19’로 소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오히려 상대방의 소리를 듣겠다는 의지와 마음을 키우고,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소명을 가르치며 이러한 소통의 과정은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소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커 파머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프레더릭 뷰크너는 소명을 ‘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뷰크너의 정의는 소명이란 자아에서 시작하여 세상의 요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소명은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하여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향한다.

1. 언택트(Untact)란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조어로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콘택트(contact)와 부정사 ‘Un-’을 합성한 단어이다.
2. 온라인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 플랫폼으로 대표적으로 ZOOM, 구글미트, 웹엑스, 유튜브 라이브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지으신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 스스로가 나의 내면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소통을 하는 것이 소명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 불안은 내면의 소리를 막아 버린다. 청소년들의 내면의 소리를 막아 버리는 대표적인 세상의 소리는 바로 '입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 계속된 경쟁과 그 속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를 놓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왜 자신들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느냐고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간혀 있는 자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고 소명의 시작이다. 이러한 소통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 같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소통하시기 위해 먼저 다가가신 장면이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던 모습,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소통하시고 그릇을 함께 쓰시려는 교제의 모습은 '소명'이 시작되는 중요한 장면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나는 매주 진행하는 소명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내면의 소리와 세상의 필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 가

치, 강점 등 자신의 본래 모습과 내면에 집중하고 글을 쓰며 정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상에서 회복해야 할 부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이나 소명인을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이처럼 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현재는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지만 이러한 과정은 여성, 노인, 남성 등 전 세대에 걸쳐 필요한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처음 언택트(Untact)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막연하게 품었던 염려와는 달리 오히려 소통의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다.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서로 소통하며 삶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소통의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소통의 길은 열려 있는 뉴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명'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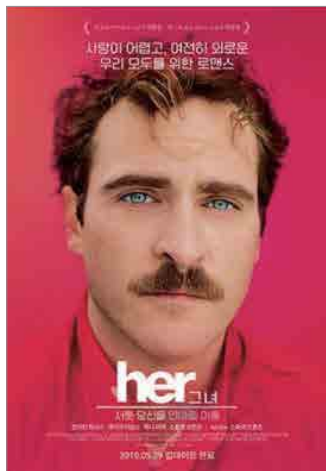


남양주에 있는 기독교대안학교인 밀알두레학교 소명교사이다. 국민대 법학과 학부, 이화여대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두레자연구등학교의 Wee Class에서 상담하며 학생들을 처음 만났고, 진로를 넘어 소명 수업이 필요하다고 여겨 소명 수업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명통통-하나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할때 발견되는 소명>, <소명통통 Think&Talk>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날로그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HER> 2013, 스파이크 존즈 감독

미래사회, 격변 시대

우리는 현재 2021년도를 살고 있다. 현재는 몇 가지 큰 ‘시프트’(Shift)가 작동하고 있다. 디지털,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갑자기 대두한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이다. 현대 문명은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두운 터널을, 그것도 고속 질주하는 느낌이다. 이 상황 가운데 지구촌 단위의 거대 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실존은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은 철저하게 ‘현실-의존적’(Reality-dependent)이기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고 해도 개인의 삶은 매우 소중하다. 오늘날 인공지능 문제는 분명 문명의 소용돌이를 몰고 오는 중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반쪽은 어디에?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는 편지를 대필해주는 직장인이다. 회사에서 관계도 성과도 모두 좋다. 게다가 대도시에서 적당한 감성을 지녔다. 문제는 오랜 시간 지내온 부부 사이에 사랑의 전선에 이상신호가 생긴다. 이혼 서류를 만지작거린다. 그러는 사이에 찾아온 외로움. 이 도시남은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흔들리며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어느 날 그를 울리는 반가운 소리를 듣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엔 무엇이 있죠?” 가히 철학적인 질문 같아 지나쳐 버릴 것 같은데 테오도르에게는 절실하게 다가왔다. 누가 이 외로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는 덩석 인공지능 OS1을 구매한다. 이렇게 해서 테오도르는 사만다라는 인공지능 여친이 생겼다. 여친은 그가 가는 곳마다 동행한다. 직장에서도, 일과 후에도, 집에서도 거의 함께 한다. 이 인공지능 여친은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다. 묻는 말에는 언제나 상냥하게 대답한다. 심지어 “기분이 어떠냐?” 묻기도 한다. 그는 점점 사만다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습관에 길들여져 테오도르는 착각에 빠져든다. 사만다가 언제나 곁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느낌. 그러나 아날로그인 인간이 기계로 완벽한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 사만다는 능력이 무한에 가까웠다. 18만 개의 파일을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아 분석, 파악한다. 테오도르의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인지 분류해 낸다. 이 OS1은 아날로그 납친을 위해 그의 작품을 정리하여



출판사에 보내고, 긍정적인 답을 얻게 한다. 이보다 더 완벽한 여친이 가능할까. 테오도르는 점점 사만다와 사랑이 가능할지 묻는다. 가능하다고 믿으려는 순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 인공지능 여친은 테오도르와 대화하는 순간에 수천 명과 동시에 소통하고 있으며 자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대상이 또한 수백 명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날로그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테오도르는 OS1과의 감정 교류에서, (그는 그것을 사랑의 교감으로 느끼고 싶었지만) 인공지능과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인공지능은 기계일 뿐이다. 인간이 인격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인간 외에는 없다. 더구나 기계와는 이뤄질 수 없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인격을 갖추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의 사랑은 창조의 생명성 안에서 이뤄지는 교감이다. 창조 안에 이미 내재된 신적 DNA이다. 사람의 생명은 아날로그로 이뤄져 있기에 존재도 사랑도 창조의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가능하다. 테오도르는 사만다가 떠나고 나서 깨닫게 된다. 과거에 자신은 사랑을 잘못 알고 있었다. 사랑의 명분으로 사랑하는 이를 지배하려고 했고, 자신에게 맞춰 달라고 요구했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그는 사만다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사랑은 사람 사이에 생명을 나누는 행위인 것

을. 사랑은 아날로그적 생명이며 고도의 인격적 교감이라는 것을.

영화 HER, 두 가지 관점

이 작품을 미래공상과학(SF)의 측면에서 보자면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인공지능은 산업용, 가사용, 교육용, 군사용 등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가운데 인간의 반려용품으로까지 개발되고 있다. 반려동물처럼 인공지능 반려 인형이 서서히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는 중이다. 영화는 반려 인공지능과의 아날로그적 사랑의 교감은 결국 불가능하다고 암시한다. 사랑은 기계와 교감할 수도 없고, 기계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 사랑은 창조와 생명에 속한 인격체의 신비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고도의 연산 체계로서 무생물인 기계일 뿐이다. 영화 HER는 그런 면에서 성인 동화나 우화라 하겠다. 현대인이 겪는 상실감, 고독감은 고도의 인공지능이라도 치유해 주지 못한다. 인간이 갖는 내면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어떤 보조적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인해 가능하다. 결국 사만다는 사이버 세계 어디론가 떠나고 테오도르는 인간의 현실로 돌아온다.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로 살아가야 한다. 사랑의 상실도 사랑의 치유도 아날로그로 이어진 사람에게서 가능하다. 아무리 고도의 인공지능 세계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대체할 수 없는 창조의 영역은 엄연히 존재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 함께 나누는 예술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코로나 19’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의 활동이 확산 일로에 있다. 이런 현상은 미술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각국의 화랑과 미술관, 그리고 아트페어에서는 온라인상의 가상전시를 통해 감상자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작가들 역시 첨단기술을 활용한 가상전시를 적극 이용하는 편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전에도 간간이 이용해왔으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대세가 되고 있는 느낌이다.

온라인의 장점은 장소 불문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관심은 있으나 전시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작품의 의도나 제작 경위, 미술사적 의의 등 작품 설명도 해주니 일거양득이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발표와 작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을 역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아트의 흥행몰이가 그것이다. 트레버 존스(Trevor Jones)의 <비트코인 엔젤>은 이탈리아 조각가 베르니니(Bernini)의 <성녀 테레사의 황홀경>을 패러디한 것으로 <비트코인 엔젤>(그림 1)에



좌측) 베르니니의 성 테레사의 환상, 1652년작.
우측) 트레버 존스의 비트코인 엔젤, 2018년작

서는 천사가 불화살로 찌르는 순간 그녀의 가슴에선 비트코인이 와르르 쏟아진다. 원작에서는 하늘로부터 ‘형형한 빛’이 내려오지만 디지털 작품에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배경을 장악한다.

한 블록체인 회사는 뱅크시(Banksy)의 <모론>(Morons)을 파괴하는 장면을 담은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그림 2)를 판매하며 “NFT와 실물이 모두 존재하



뱅크시의 작품을 불태우는 비디오 장면

면 작품의 가치는 실물에 종속된다.” “원화를 없애면 NFT가 대체 불가능한 진품이 되고 오히려 작품의 가치는 NFT로 옮겨간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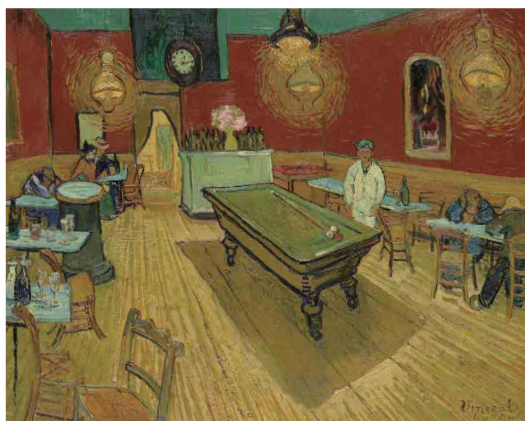
NFT가 증명하는 유일한 원본은 경매에서 구입한 이미지 하나뿐이라는 걸 입증해주는 블록체인의 기록이다. 구입자는 물성이 있는 무언가를 주고받지 않는다. NFT는 디지털 세계가 낳은 ‘복제품’을 ‘원본’으로 변환시켜 예술의 전통적 개념을 새롭게 정의 내렸다. 그것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일종의 ‘스턴트’에 불과하다는

1. NFT는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서, ‘대체 불가능 토큰’의 미이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 교환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다.

혹평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술에서 '코로나 19' 이후의 뉴노멀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크게 기대할만한 것이 못될 것이다. 뉴노멀을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넘어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 체계에서 구해야 한다고 전제할 때 우리는 먼저 미술품이 지닌 기독교적 의미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상의 도성'이 재화와 탐욕으로 치달을수록 '믿음의 도성'에서는 공감과 포용으로 나아가 하지 않을까?

빈센트 반 고흐의 <밤의 카페>(1888)(그림 3)는 프로방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 1888

스 아들의 카페 장면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시계 바늘은 밤 12시가 훌쩍 넘겼음을 알려준다. 빈 테이블에는 술잔과 술병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도 목격된다.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며 “카페란 자아를 파멸시킬 수도 있고 미쳐버리게 하거나 죄를 범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천정에 달린 가스등의 불빛이 눈길을 끈다. 그 빛이 사람들을 비춘다. 그것은 <감자먹는 사람들>에서도 나타났던 ‘은총의 불빛’이고 ‘구원의 불빛’이다. 고흐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표현한 셈이다.

기드론 골짜기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생명과 풍요

가 넘치는 장소였지만 다윗에게는 패역한 압살롬의 위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던 치욕과 고난의 장소였다. 우리는 안락과 편안함을 바라지만 구원의 자리는 오히려 고난의 자리 속에 있음을 알려준다. 고흐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의 손님으로 바라보고 보았다.

한편 필자는 그리스도인 작가들에게 뉴노멀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물어보았다. ‘부케와 아바타로 은폐한 개인들을 참 진리와 사랑으로 끌어안아야’(서자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사랑의 나눔’(최진희), ‘빛진 자의 마음으로 익숙한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김정희), ‘기독교 문화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기회’(김명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정해숙), ‘소중한 일상의 재발견’(이윤동), ‘관계의 축진에 나서야’(장지희) 등. 그리스도인 작가들은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어갈지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 자체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작가들은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창작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팬데믹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나아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전한다면 최고로 멋진 일이지 않을까. **FAITH & LIFE**



✍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뉴노멀 시대 구원의 첫 걸음. 소득의 현재를 이해하다

황윤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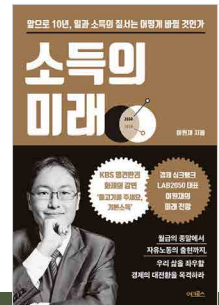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신8:18).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시며 훗날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신다. 한국은 전쟁 피해를 딛고 매년 7~15% 성장하며 GDP 1조7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국 개신교회 역시 큰 예배당을 짓고, 목회자 중심 사역과 모임들을 완비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고도 성장은 끝났다. 세계적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3저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며 이전 행동 양식은 유효하지 않다. 한국 역시 IMF를 기점으로 저성장에 접어들며 양에서 질로, 단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목표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변화 못해서인지 뉴노멀 젊은 세대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외면당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도그마들을 멈추고, 잠잠히 삶의 낮은 자리로 나아가 영혼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원재 저작 <소득의 미래>(2019)는 현재 뉴노멀 시대 소득구조의 변화와 냉혹한 현실을 잘 소개해주고 있다. 저자는 한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한다. IMF를 겪으며 기업생존 차원의 제도적 ‘해고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IT 기술로 노동력이 대체되며 정규직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졌다.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소득처를 잃고

가난해진 반면,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한 소수는 글로벌 수출 호황 덕분에 급속히 부유해졌다. 90년대 이후 대한민국 상위 10% 소득의 전체 국가소득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대기업 대표(오너)의 연봉과 배당소득이 100억 원을 넘으며 상위 1%의 전체 소득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안정적 일자리로 중산층은 부유해질 기회를, 서민층은 중산층이 될 기회를 얻었지만 이러한 기회는 사라졌다. 자산 편중과 권력 편중으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정규직 가장 중심의 자녀와 노인 부양 시스템이 붕괴되고 일자리를 찾아 흩어진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관계가 변했다. 청년들은 공무원, 공기업 시험 준비에 기약 없이 매달리고 혼인, 출산, 자녀 양육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장년들은 긴 수명에 비해 앞당겨지는 은퇴 시기를 바라보고 자녀에 의탁할 수 없는 노후를 위해 부동산, 주식 등 자본 소득 마련에 집중한다.

저자는 뉴노멀 시대의 현실을 자세히 조망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부의 분배를 주장하는데,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어렵기에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전망 구축을 제안한다. 대기업 수익 창출에 과학기술 연구지원 등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한 정부가 수익의 사회분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용자 데이터 참여 플랫폼 수익에 대한 증세로 기본 소득 재원을 제안한다. 책은 기본 소득에 대한 비판과 반론, 예상되는 자유 노동, 경제적

〈소득의 미래〉이원재 / 어크로스 / 2019



효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한국형 기본소득제 가능성을 모색하며 마친다. 소득편중이 심한 사회는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공동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사회적 신뢰와 이타심이 낮아진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훗날 극심한 소득편중이 해결되도록 모세에게 미리 회년을 명하셨다. 성경에서 회년이 안 지켜지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처참한 결과를 우리는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에서 목격한다. 따라서 소득편중 해결 모색 차원의 기본 소득 답론은 매우 바람직하다. 단,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부유한 집단을 단편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에 대한 경계, 자발적 참여형 분배문화 조성, 분배자 역할에 취해 비대해지거나 부패하는 정부에 대한 경계를 전제로 소득편중 해결 논의가 더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해결책 논의가 다소 부족함에도 책은 뉴노멀 시대의 소득편중 상황과 시대적 무게를 자세히 드러낸다. 소득편중은 개신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대형교회, 중형교회, 그 외 교회 간의 큰 격차, 대형교회 세습 등 물질주의의 민낯이 사회적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새 시대와 옛 시대의 간극에서 기인한 위기는 오히려 건강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목회자 중심, 큰 예배당 중심이 아닌 예수 가치 중심, 삶 중심의 연합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말씀) 빼고 다 바뀌!”의 변혁적 영성이 필요하다. 교회는 오래된 관습을 주장하지 말고 잠잠히

영혼들이 처한 새로운 삶의 무게에 공감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여호와를 기억할 삶의 물질적 열매를 얻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고도 성장기 가나안 입성을 최초로 준비하고 성취한 아비 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 이스라엘은 언제 열릴지 모를 가나안 입성을 위해 새벽부터 지나간 줄을 서 있다. 이미 가나안에는 오래전 입성한 아비 이스라엘이 가득하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라는 격려일까,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라는 위로일까? 얼마 전 유명 TV에 소개되신 이문식 신부님 사면에 해답이 있다. 지병과 굶주림으로 죽은 한 청년의 소식을 들으시곤 청년들이 싸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김치찌개 식당을 열어 열심히 섬기시는 신부님 사역에 뉴노멀 시대 변함없이 좇아야 할 구원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지 돌아볼 때다. FAITH & LIFE



✍ 글쓴이 황윤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다. 한동대 경영경제 학부(B.A.)를 졸업하고 KAIST에서 기술경영 박사(Ph.D)학위를 받았다. 캠퍼리지대 객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혁신 비즈니스,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말씀 나눔 제자 공동체인 ‘하심’(하나님의 심정)을 섬기고 있으며, 대학원 시절 ICF(International Christian Fellowship)를 세우고 섬겼다. 현재 캠퍼스에서 종교가 없는 뉴노멀 세대 학생들과 ‘라이프 모임’을 가지며 삶과 종교, 예수님을 나누고 있다.

뉴노멀 시대의 노동을 생각한다

유재홍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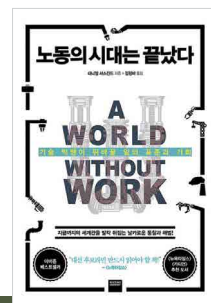
대니얼 서스킨드(Daniel Susskind)의 책,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의 미래를 보여준다. 단적으로 20세기 초 자동차가 대량생산되면서 마차가 사라졌듯이 21세기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교통운수업은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다. 세탁기가 등장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활발해졌다는 주장처럼 노동의 형태로 새로운 '노멀'(normal)로 나가고 있다. 자동화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고도의 계산력과 추론력을 가진 인공지능은 의료, 법,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전문직의 영역까지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변화는 필연적이다.

서스킨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영국 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정책자문관으로 일했다. 그는 이 책에 앞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쓰면서 전문직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책은 더 극단적인 제목을 붙였다. 원제 <A World Without Work>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노동이 사라지는 것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 예견한다.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하고,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적 노동, 전문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육체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일자리는 급격한 기술적 실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된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시급해졌다. 실업 인구의 범죄, 건강, 적은 소득으로 인한 의식주 문제, 교육, 나아가 세수의 부족, 소비 침체 등 심각한 사회 경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자는 예상되는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기본 소득 정책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은 학벌 중심에서 평생 교육 체계로 전환하여 언제든지 유연하게 새로운 고용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이미 주변에 보이는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현실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결국 노동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그간의 산업 혁명기처럼 기술적 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의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환기의 시대, 일, 직업, 사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의 원천으로서 직업을 갖고 꾸준하게 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사역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코주부'(코인, 주식, 부동산)같은 자본 소득의 가치에 집중하는 시기에 그 고민은 한층 깊어진다. 자본을 이해하고 자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애쓰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대니얼 서스킨드 / 김정아 역 / 와이즈베리 / 2020



는 것이 지혜로운 중의 자세인지, 우직하게 지적, 육체적 노동을 감당하며 일을 해나가는 것이 더 숭고하고 바른 삶인지 혼돈스러울 수 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더욱이 일자리의 위기가 가중되면 노동은 '질고'(疾苦)로 여겨지고 질고에 매인 삶의 의미는 평가 절하된다.

'나만 뒤 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소위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현재의 일을 선택한 이유,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돌아봐야 한다. 어쩌면 그것은 경제적 보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눈앞에 기회 비용을 날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의 목적, 즉 사명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이후 사명을 이뤄가는 것은 결국 노동을 수반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노동은 새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이 되고 있다. 단순히 거부감보다 장기적으로 자기 도구로 만드는 평생 학습의 태도가 필요하다. 서스킨드가 전문직의 소멸을 예견한 것처럼 오늘날은 다양한 개인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로 활약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시대다. 더 작은 생활의 아이디어부터, 의료, 법률, 전문 기술 지식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다. 게다가 코로나는 비대면 온라인 환경을 정보, 쇼핑, 교육,

문화, 심지어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잡게 만들었다.

디지털 기술은 연결의 도구이며 연결은 영향력의 기회를 만들어낸다. 수천, 수백만의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버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성'이 중요하다. 단기적 비전과 지식이 아니라 개인의 일생을 통해 겸손하고 진실되게 축적한 질 높은 콘텐츠가 결국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감동을 주며 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디지털 전환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점차 등장할 것이다. 당장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가족들, 전환기의 부작용자들, 각박한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 새로운 배움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의 의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다. 이들에게 손을 뻗고, 빵을 주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유재홍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AI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이다. 한동대에서 경영경제학 전공, 전산학 부전공(학사), KAIST에서 IT 경영학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고신대 인터넷비즈니스학과 전임강사, KAIST 산업경영연구소 연수 연구원을 역임했다. 동문교회 집사이다.

뉴노멀 시대 : 한국교회와 강단에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

정창균 (설교자하우스 대표, 前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코로나 19’로 시작된 세계적이고 세기적인 비정상적 상황이 점차 새로운 정상이 되고 있다. 봉쇄, 격리, 거리두기, 대화 금지, 모임 금지, 악수 금지 등과 같이 숨통을 조여 오는 것 같은 해괴한 모습을 강요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Ab-normal) 상태가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닥친 새로운 시대를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부르기로 하였다.

‘설교자하우스’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와 설교’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한 차례의 대면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그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그리고 ‘설교에 대한 이해와 문제,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담았다. 이 책에서 제시한 우리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뜻에서 내놓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요의 의도를 담은 것도 아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리저리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갖게 된 생각들을 나뉘보고자 정리하였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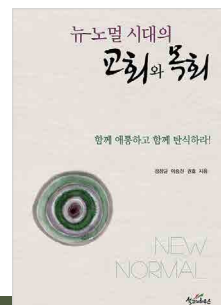
제1장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정창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교수 & 前 총장)은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닥친 현상을 ‘뉴노멀 시대’로 규정하고 이러한 시대의 교회와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큰 그림과 함께 제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

고자 하였다. 즉 뉴노멀 시대가 교회와 목회에 던지는 다음 같은 두 가지 궁극적인 요구에 주목했다. 첫째,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판을 새로 짜시겠다는 시대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그 새로운 판에 맞게 모든 면에서 혁신을 이루라는 것이다.

제2장 ‘뉴노멀 시대의 교회 안 목회와 교회 밖 목회’(권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교수 & 목회대학원장)은 뉴노멀 시대 목회의 영역과 대상에 대한 개념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우리의 인식에 근거하여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에 목회자는 먼저 성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안의 목회에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고려하고, ‘코로나 19’ 사태에 지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지역 사회를 치료할 준비가 되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목회의 영역에서는 이제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 사회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목회라는 차원에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제3장 ‘뉴노멀 시대의 강단 목회’(이승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교수 & 목회자연장교육원장)은 목회 현장에서 이전의 설교 방법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효과적 강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정창균, 이승진, 권호 / 설교자하우스 / 2020



단 목회는 무엇일지를 묻고 답한다. 첫째, 최근 한국의 뉴미디어 생태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생태계가 매개하는 가상현실, 사이버 스페이스의 파급력에 대해 정리한다. 둘째, 뉴미디어가 기독교적 소통 환경과 설교 생태계에 각각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뉴노멀 시대에서 복음의 확산과 소통을 위한 매체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평가한다. 넷째, 뉴노멀 시대에서 설교자들은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뉴미디어의 부정적 파장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지 다룬다. 이렇듯이 3장은 ‘코로나 19’로 말미암은 현상에 대한 대응책에 국한하지 않고 뉴미디어 시대라는 더 포괄적 상황을 전제로 설교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뉴노멀 시대는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산지사방에서 ‘코로나 19’로 말미암은 돌발적인 상황들이 지뢰 터지듯 여기 저기서 터지고 있다. 어떤 계획도 확정할 수가 없고,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큰 걱정이다. ‘코로나 19’를 퇴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이 사태가 남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공황 상황은 더 무서운 공포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갈 듯하다. 어떤 학자들은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이렇게 열리는 새 시대는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특별

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 속에 담아놓으신 시대를 향한 징조를 파악하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역사의 궁극적 진행 방향을 내다보며 자기 혁신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취할 반응이어야 한다. 이전 것을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에 맞춘 변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식이 되었다. 새로 열리는 시대는 ‘반복적 다시’(Again)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Reset)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고통일 수 있고, 하루하루 그 고통을 살아내야 하는 고난의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가는 창의력 넘치는 새로운 길들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또 하나의 길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버거운 목회 현장을 이끌며 이 격동의 교회 현실을 살아가는 이 나라 교회의 모든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정창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前 총장이자 ‘설교자하우스’ 대표이다. 전북대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쉬대(Stellenbosch Uni.)에서 설교학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교수(1998-2020)와 총장(2017-2020)을 역임했다. 남포교회 협동목사이다.

뉴노멀 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은 2020년 SBS 방송국이 ‘코로나 19’ 이후의 뉴노멀(New normal) 세상을 준비하는 석학 초청 강좌의 결과물이다. 초청된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 1949 -)은 정치이론, 정신분석학, 현대 철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통찰로 인문학, 사회과학, 대중문화론 등의 전방위적 사유를 펼쳐왔다. 책의 핵심 내용은 지젝과 그의 한국인 제자 이택광 교수(경희대 교수)의 국제 화상 대담이다. 과연 우리가 뉴노멀 세상을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10가지의 화두를 중심으로 한 지젝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에게 익숙했던 과거의 일상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새 시대의 시작을 인정하고, 다른 생활 양식에 적응해야 한다. “코로나라는 악몽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코로나가 비극적인 이유예요.”(60, 66면).

둘째, 다른 방식의 종말을 원한다면 맞서 싸울 전략을 수립하라! 새 전략이 필요하다. 지젝은 상황을 이렇게 포착한다. “지구상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권층은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받고,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면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은 위험을 불사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해요. 누군가는 음식을 포장하고, 배달을 해야 하죠.”(69, 7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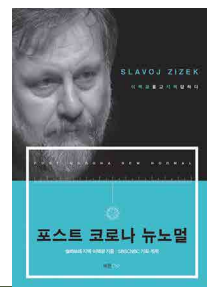
셋째, 급소를 가격당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자본주의를 더 막다른 골목에 몰아 놓았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엄청난 제어 능력을 갖게 되었죠. 대기업과 국가 기관들에 의해 디지털 미디어는 점점 더 통제되고 있어요.”(89면).

넷째,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지젝의 뉴노멀은 이런 것이다.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수많은 뉴노멀이 있겠지요.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94-95). 영화 〈자도즈〉(zadoz), 〈엘리시움〉(Elysium)처럼 “극히 선택받은 사람들만 안전하게 격리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된 겁니다.”(102면)

다섯째, 코로나 시대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는다. 한국의 ‘코로나 19’ 관리가 전체주의적이라는 비판에도 답한다. “제 이스라엘 친구들이 해준 말이 있어요. 이전에도 권력자들은 이미 감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지금은 최소한 공공의 안전이라는 ‘선한 이유’로 통제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허황된 두려움이에요.”(125면).

여섯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명하라! 지젝은 특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한다〉 지젝 & 이택광 / 비전CNF / 2020



히 의료서비스나 식량같은 공공재를 함께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답을 구할 수 없어요. 인류가 계속 공적 영역으로 남겨야 할 부분들을 지키고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132면).

일곱째, 격화되는 미·중 갈등, 국제 질서의 미래는? 지젝은 중국과 미국 어느 곳도 우리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데요, 글썄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지만 시장경제는 살아있는 잔혹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힘센 정부를 가진 중국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163면).

여덟째, 전 지구적 나눔과 협력이 신국제주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 뉴노멀은 최소한의 공공 영역을 보장하고, 국가적 이기심을 버린 인류애(humanity)가 존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세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해요. 이젠 남들과 연대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 됐어요. 길게 보면 내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기 때문이에요.”(176면).

아홉째, ‘그린 뉴딜’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있다. 지젝은 친환경 시스템으로 경제 구조를 재건해야 한다는 피케티(Thomas Piketty)의 주장에 동의하나, 그의 중앙집권화된 세계 정부론에 대해서는 우려한다. “세계 정부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183면).

열 번째, 어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파는 가게 앞에서 있어요.” “우린 이제 정해야 해요. 예전 상황은 지나갔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신기원의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189면). 이렇듯이 이 책은 우리에게 지젝의 혜안을 통하여 왜 뉴노멀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세상은 이미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 전인류적 도전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연의 사건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으로 그 지혜와 통찰을 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 함께 도움이 될 것이다. **FAITH & LIFE**

1. 지젝은 셰클리(Robert Sheckley)의 소설 〈세상을 파는 가게〉(Store of the Worlds, 1959), 즉 핵전쟁 이후 사람들이 좋았던 과거를 잠깐이라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친다는 이야기에 빗대어 기로에 선 현재 인류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자 침신대 겸임교수이다. 지난 27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학생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조직신학, Ph.D), 서울대학교교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위한 미국 되찾기 : 미합중국의 기독교 국가주의

추천 : 웨슬리 Wentworth (Wesley Wentworth) 선교사

해제 :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하나님을 위한 미국 되찾기〉에서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지속적인 도덕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이 책의 두 저자, 앤드류 화이트헤드(Andrew L. Whitehead)와 사무엘 페리(Samuel L. Perry)는 모두 사회학 전공자들이다. 이들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여론조사와 대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서 먼저 정량적 연구를 했고, 그것을 다시 BRS(Baylor Religion Survey)와 비교하면서 얻은 결론을 모아서 이 책을 썼다. 트럼프 열풍에 대한 거의 최초의 사회과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이들은 우선 미국의 기독교 국가주의자들이 주장할 법한 핵심 명제 여섯 가지를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서 ‘적극 지지’, ‘지지’, ‘반대’, ‘적극 반대’, ‘의견 없음’ 중의 하나로 대답하도록 했다. 이들이 만든 이 여섯 가지 명제들은 ‘기독교 국가주의’(Christian Nationalism)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현상을 표현한 것이었다. 여기서 기독교 국가주의의 핵심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며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미국 시민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책은 이렇게 기독교 국가주의에 대한 ‘적극 지지’, ‘지지’, ‘반대’, ‘적극 반대’의 범주를 정하고, 미국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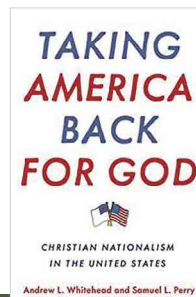
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들의 대응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국가주의가 현재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저자들은 그 과정에서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냈다.

저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도덕적 문제를, 기행, 흠결, 혹은 실수라고 부르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사람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유익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도입한다. 즉 트럼프에게 설령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정책이 기독교 국가주의의 이념에 유익하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독교 국가주의가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저자들은 기독교 국가주의를 기독교와 동일시하지 않아야 할 것을 지적한다. 그것이 비록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종교적 열심과 기독교 국가주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흥미롭다. 멕시코 장벽, 이민자 금지 같은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국가주의 옹호자들일수록 찬성이 높지만, 복음주의 신앙에 충실하고 개인 경건에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을 무분별하게 트럼프 지지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한다.

〈하나님을 위한 미국 되찾기〉

(Taking America Back for God : Christian Nationalism in the United States)

앤드류 화이트헤드(Andrew L. Whitehead) & 사무엘 페리(Samuel L. Perry) /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기독교 국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배타성과 미국 우선주의이다. 기독교 국가주의는 그리스도인 미국 시민인 ‘우리’와 그 밖의 ‘타자’를 쉽게 구분한다. 이 ‘타자’에 이민자와 타종교인들이 포함된다. ‘우리’가 아닌 ‘그들’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세력으로 간주된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을 받은 미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에 있으므로 미국은 세계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멕시코 장벽을 쌓은 트럼프에게 많은 복음주의 신자들이 열광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다.

멕시코 장벽의 정당성을 지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쌓도록 했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총기 소유권을 규정한 미국수정헌법 2조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 국가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저자들은 기독교 국가주의가 결국 미국의 기독교 세력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기독교 국가주의의 적극 지지층으로 갈수록 연령은 높아지고 학력과 수입은 낮아지는 현상은 보수주의 권력에 이용당하는 한국의 태극기 부대를 연상시킨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적극 지지자들이 주로 고졸의 농촌 인구였던 것을 상기시킨다.

이 연구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반성하도록 했

다. 기독교 국가주의의 기본 이념은 미국이 기독교 정신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말고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프란시스 웨퍼를 포함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주장과 상응하는 면이 있다. 이런 원리 아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창조론 교육, 이혼과 낙태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정책을 반대하는 ‘우리’와 그것을 찬성하는 불신자인 ‘그들’과의 분리가 형성되고 그것이 때로 충돌로 발전한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때 그것의 이데올로기화를 막을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독교적인 가치를 소화되지 않은 종교적 원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편적 원리로 걸러낸 후에 사회에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의 이데올로기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거짓과 속임의 역사〉(드림북), 〈중생과 자기 부인〉(드림북), 〈홍해에서 요단까지〉(성의책방), 〈땅에 기록된 하늘의 법〉(성의책방) 외 다수가 있다.

서향교회 '청년신학아카데미'

-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

백성은 ('청년신학아카데미' 간사 & 기획위원)



서울 양재역 부근 오래된 건물 2층에 위치한 서향교회는 지성적 경건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의미 있는' 기지 교회를 지향하며 선교, 창업, 교육, 청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서향교회는 그러한 '의미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청년을 키우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년을 키우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가 중요함을 절감한다. 그리하여 개척 초기인 2016년 5월부터 선교단체 GBS(Global Bridge of Sharing)가 주관하는 '청년사역혁신포럼'에 참여한다. '청년사역혁신포럼'은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폭넓은 지식과 청년 사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포럼이다. 이후에 선교단체 GBS는 '청년사역혁신포럼'을 진행하면서 '청년신학아카데미'를 새로 개설한다. 당시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고심하던 서향교회는 '청년신학아카데미'를 매개로 선교단체 GBS와 협력하여 콘텐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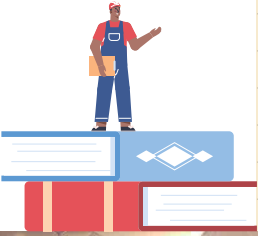
'청년신학아카데미'는 세 가지 목적에서 만들어진다. 첫째, 지성적 경건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통해 지역 교회 내의 청년 사역의 실천적인 신학을 제공한다. 둘째, 탈사역적이고 감성주의적 신앙에서 성찰하는 실천적 신앙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한다. 셋째, 청년사역자(청년, 대학부 소그룹 인도자 포함) 상호간에 담론 형성의 장을 만든다. '청년신학아카데미'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청년신학아카데미'는 청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고민들을 나누고 해소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청년신학아카데미'는 성경의 의미파악과 성경 주석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넘어 실제 삶 속에서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성경해석학' 집중훈련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청년신학아카데미'는 청년들로 하여금 지성적 경건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밀도 있게 공부하는 소그룹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개인에 머무르는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총체적 신앙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제시할 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실천하려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제시한다.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신학아카데미'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려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청년신학아카데미'는 현실 및 시대와 관련하여 성경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 성경해석방법론인 '실천성경해석학'을 제시한다. '청년신학아카데미'는 그 모든 고민들과 더불어 씨름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년신학아카데미'는 이 시대 교회가 던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천성경해석학'을 비롯하여 생태와 하나님 나라, 공동선과 하나님 나라 등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시대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FAITH & LIFE**

서향교회 '청년신학아카데미' 소감문

하나님 나라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게 하는 마중물



어려서부터 교회의 비상식과 이중성에 질려 '신앙 없는 모태신앙'으로 살던 24살 무렵,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기독교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양을 좇아 최선을 다했다. 신학교에 가서 개혁신학의 뽕에도 취해보고,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기성교회의 근본주의 신학에 학을 떼며 진보 신학과 인문학에도 기웃거렸다. 신자가 된 20대 중반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신앙에 몰입해서 살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몰입했던 만큼이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는 의문이다. 누군가 나에게 답을 찾았냐고 묻는다면 찾고 있노라 말할 것이고, 사람을 남겼는지 묻는다면 신앙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도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은 있었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청신아'(청년신학아카데미)가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신앙을 고민하는 것과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다. 신앙의 의미를 묻는 건 그 의미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고 싶은 것이다. 다만 신앙의 의미는 믿는데 내가 두 발 붙이고 사는 사회와 일상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만나지 못해 괴로운 것이다. '청신아'는 이런 나의 고민에 말로 답해주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 답해주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청신아'의 사역은 세상과 성경 사이의 서로 찢어진 부분을 다시 꿰매는 작업이다. '청신아'를 진행하는 목사님들과 모임 때마다 서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실천성경해석학'이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오늘과 현실 속에 적용되는 성경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개하자면,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내린 근본주의 토양 위에 독버섯처럼 퍼지는 '뜬구름 잡는 성경해석'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자갈처럼 깔린 수많은 소그룹 나눔과 교회 강단 메시지를 속에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함축되어 있을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을 문장으로 외우고 복음을 구호처럼 외치기만 해왔다.

글을 시작하면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집사님들의 이중성이 싫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온갖 하늘의 신령한 언어들에 쏟아지지만 어린 내 눈에도 그들의 표정과 행동은 가식이란 걸 알 수 있었다. '현실과 괴리된 복음'은 명목적인 종교인만을 만들어낸다. 반면 실천적 성경해석의 힘을 받은 '현실과 연결된 복음'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펜을 쥐고 있는 나의 일상에 실재가 되게 한다. 또한 타락한 마음에서 나온 이기적인 부름을 외면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타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능동적으로 변혁하며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용기를 갖게 한다. '청신아'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글쓴이 유재근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다. 우면동 교회 청년이다.



소비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에 대한 연구

이상민 (교육학 박사)

현대사회는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소비사회’로 흔히 규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늘 더 많이 소비하는 광적인 소비 욕구가 증대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소비 행위가 일상화된 ‘과소비 사회’가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새로운 소비 문화가 자리 잡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소비는 이제 개인의 삶의 목적이 되고 생활양식을 이루는 핵심 요인이 된다. 소비가 삶의 한 방편이 아니라 삶의 중심 및 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과소비 사회’에서는 물질적 만족은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물질적 만족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또한 ‘과소비 사회’에서 소비의 즐거움은 삶의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채 기업의 광고와 마케팅 전략에 휘둘리고 종속된다. 특히, 지구촌화와 세계화는 소비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도 전 세계적인 소비 주도 사회로의 변화에 가세함으로써, 한국의 소비문화는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적인 변화 및 전개 양상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대중 소비시대로 진입한다.

과도한 소비 때문에 고갈되어가는 자연 자원 문제를 비롯해 이상기후 문제와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과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문제의 주된 원인은 원자재, 에너지, 각종 제품을 ‘언제나 더 많이’ 소비한다

는 것이다. 끝없는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된 대량 소비사회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끝없는 경제 성장이야말로 대량 소비사회의 본질이지만, 지구는 유한하기에 더는 끝없는 경제 성장의 길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은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이며, 이를 위해 ‘탈성장’이 제시된다. ‘탈성장’ 곧 ‘성장 사회’와의 결별은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탈성장’의 목적은 욕구의 자발적 제한을 기반으로 하는 ‘검소하고도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검소한 풍요로움’으로 특징지어지는 ‘탈성장 사회’야말로 문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자발적으로 선택된 검소한 생활에 기초한 사회는 나눔의 윤리와 실천 속에서 사회의 행복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므로, 이타심, 호혜, 공생, 나눔,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무상 공여’의 정신은 ‘탈성장 사회’를 세우는 데 핵심 요소가 된다.

과도한 소비와 물질주의로 나타나는 소비주의에는 사랑하고 베푸는 것 대신 차지하고 즐기는 것이 더 중시된다. 이처럼 소비주의의 중심에는 소유와 쾌락이 있기에, 소비주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치 체계이다. 물질로 인해 느끼는 만족감은

한계가 있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참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즉, 진정한 영생,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만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물질 숭배적 소비사회에 저항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소비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따르는 삶으로 제시된다.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것,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 타인과의 연대 의식으로 결속되는 것이 소비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대안적인 삶으로 제시된다.

한국 사회의 소비문화 가운데 고도 소비주의 사회에 맞서는 대안 사회를 제시해야 한다. 소비사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욕망의 절제, 불편의 감수, 이웃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뿐 아니라, 이 대안적 삶은 모든 것을 자신의 유익에 종속시키지 않는 동시에, 세상의 소비 욕구에 굴복하지 않는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대안적 삶은 환경보호론자들이 강조하는 에너지 절약, 쓰레기 배출 감소, 내구성 제품의 이용, 자동차의 포기, 낡은 물건의 수리 사용 등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결국, 고도 소비주의 사회에 맞서 대안 사회를 제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은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비로 나타나야 한다. 또한 그 대안적 삶은 '검소하고도 풍요로운 사회'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타심, 호혜, 공생, 나눔,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같은 가치들과 더불어 '무상 공여'의 정신을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주체로서 자신의 소비행위를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회가 '녹색 소비', '지역 소비', '공정무역' 같은 '윤리적 소비'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 행위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는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간접적 방법으로 '윤리적 소비'를 도울 수도 있다. 지역 교회는 '윤리적 소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교회의 소비자 운동은 일반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이나 환경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공정무역 같은 사회 책임도의 식하게 함으로써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탐욕이 없는 존재이면서, 대가 없이 거저 주는 '무상 공여'의 정신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은 대가 없이 거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나타낸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통해, 좌절이 근본적으로 치유된다.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더는 다른 사람과 비교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선전과 광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상민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불문학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기독교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 및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프랑스 사상가 자크 엘뤼(Jaques Ellul)의 저서 여러 권을 번역했으며, 자크 엘뤼의 사상과 관련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저서로는 <자크 엘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가 있다.

<신앙과 삶> 독자 한마디

<신앙과 삶>(3+4월호) 특집: '신앙과 괴리된 삶의 회복'에 대하여

'신앙과 괴리된 삶의 회복'이라는 특집 주제 자체가 좋았습니다. '코로나 19' 시대에 광풍과도 같이 다가오는 유혹과 위협에 맞서며 고민하는 삶의 발자취를 나누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만 큰 주제를 다뤘는데 용두사미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가 희미하거나 다소 추상적입니다. - 김영호 (IT 전문가, 정회원)

늘 울림을 주시는 '시선'의 손봉호, '사람 사이'의 김기석의 글과 말에서 마음이 차분하고, 단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성민의 신간 <세계관적 성경 읽기>에 대한 최종원의 서평과 주도홍의 루터 논문 요약 글에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제자의 길로 겸손과 겸비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김기석과 이은실의 말씀에서 우리 시대 청년들에 대한 따스한 이해와 공감이 느껴져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안마 사태에 공감하는 '성명서'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 김욱 (성공회대 해석학 박사과정)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대안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제자도 적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토지 정의와 희년 사상 부분에 좋은 내용을 기고해 주신 특집 글 필자 남기업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 이병수 (고신대 교수, 정회원)

토픽이 다양해서 좋고, 사회적 이슈와 성경관을 접목한 점이 좋다. 끝부분에 재정 보고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나 싶다.

- 이상진 (목포대 교수, 정회원)

'신앙과 괴리된 삶의 회복'을 주제로 삶에 대한 천착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 위에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하려는 몸부림이 아닐까? 특히 경제생활에 있어서 본업에 충실하고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희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현한다. 기독교인들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 유승민 (샘물중등학교 교장, 정회원)

경제와 직업, 법 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분쇄퍼처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로 꼭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정아 (성균관대 교육학 박사과정)

장수영 교수님 '섬김의 자리' 글에서 하나님께서 '고신' 것 같다'라고 하신 표현이 재미있지만 은혜로웠다. 신앙과 괴리된 현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이끌어가시길 기대한다. - 엄동한 (부산대 교수, 정회원)

김병재 선생님이 쓰신 '부모가 된다는 것'이란 특집 글을 읽으며, 나는 과연 교회로서 부모 됨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하게 되었다. 신앙과 괴리된 삶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부모가 되는 기쁨을 선택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사랑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길 기도한다.

- 조예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본업에서 고민해내는 글이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고 있어 풍부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로 세상 보기'를 통해서는 지금 시기에 필요한 책과 영화들을 추천받을 수 있어서 특히 참 좋습니다. 각 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문구 한두 문장 정도가 여백에 일러스트 형식으로 제공되면 해당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알 수 있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탁장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좋은 글들에서 많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평안하시고 학술대회 때 뵈요.....^^ - 황인태 (협성대 교수, 정회원)

예전 <월드뷰>에서는 젊은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높은 스펙의 사람들 글만 실리는 게 사실 많이 아쉽네요...^^ - 필자 미상



KCI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



- 26권 1호(2021년 3월 31일) 발간
- 유용욱 (원광대 치과대학 교수)의
“팬데믹과 기독교 선교” 논문 외 총 9편의 논문이 게재
- * 1년 4회 발행 (3/31, 6/30, 9/30, 12/30)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안내(온라인)



- 주제: “뉴노멀, 기독교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21.05.22(토) 13:00~18:00 (대학원생부: 10:00~12:00)
- 장소: 사무국 Zoom 회의실, YouTube
- 주제강연: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양승훈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교수)
강영안 (미국 칼빈신학교 철학 교수)
- 분과별 논문발표회(Zoom): 대학원생부(2개 분과, a.m. 10:00~12:00)
교수/일반부(9개 분과, p.m. 3:30~6:00)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MEOW 교수),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까나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샘병원 의사),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권오병(경희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번역가),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용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지도자 프로그램 : '2기 기본과정'과 '1기 강사과정'을 3월에 개강해서 1년 동안 진행한다.

-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 :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 고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먼저 배워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5월 12일부터 나니아 연대기의 여섯 번째 책인 <은의자>를 개강한다.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세계관' 강의 : 3월 개강해서 1학기 동안 진행 중이다.

- '부모교사 세계관 학교' : 3월부터 삼일교회, 성광교회, 성남제일교회에서 12주 과정으로 열린다.

- CTC 홈페이지 오픈 : CTC 교육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홍보를 부탁드립니다(www.ctcworld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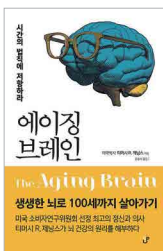
- 온라인 CTC 프로그램이나 참여 신청 문의 : CTC 사무국(010-2792-5691)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이다.

www.cupbooks.com * 문의 : cupmanse@gmail.com | 02-745-7231

- 신간 소개



〈에이징 브레인〉 티머시 제닝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368쪽 | 18,000원

생생한 뇌로 100세까지 살아가기

뇌를 생생하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검증된 방법

활력 있고 건강한 뇌는 선택에 달렸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유년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뇌가 평생 가변적이기에 오늘의 바른 선택을 통해

뇌를 보호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뇌의 노화 원리를 개괄했을 뿐 아니라 최신 과학연구 결과를 실천 전략으로 전환해 기억력과

인지력의 향상을 돕는다." 앨런 A. 앤더슨(의학박사, 브래튼 기억진료소 소장,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교수)

"실생활에서 의료와 생활방식의 변수를 관리해 뇌 건강과 노화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을 명쾌히

기술했다." 마이클 라일스(정신과 의사, 저자, 강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1년 3월, 4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3월	2021년 4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3월	2021년 4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670,000	1,670,000	인건비	일반급여	4,920,000	4,920,000
	임원회비	1,100,000	54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5,324,500	5,483,500		소계	5,320,000	5,320,000
	기관후원금	3,150,000	3,1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395,203	365,421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65,980	224,950
	CTC후원금	110,000	60,000		우편료	30,950	12,880
	VIEW후원금	1,330,000	1,210,000		소모품비	2,300	68,90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696,500	410,000		식비	258,000	316,0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535,220	598,690
	기타	390,547	0		퇴직연금	202,270	2,701,410
					컴퓨터	0	99,000
	소계	12,771,547	12,473,500		교육비	0	0
기타수입	일반이자	3,674	0		회의비	0	9,500
	법인이자	0	0		회계용역비	55,000	385,000
	법인세환급금	0	30,520		여비교통비	20,000	0
	기타수입	0	0	연구지원비	사무비	202,015	133,000
	기금차입	400,000	0		기타(지급수수료)	165,515	145,187
	결산이자	0	0		소계	2,882,453	5,909,938
	예수금	315,310	300,260		연구회연구지원	0	0
					도서구입비	0	0
					CTC후원금	19,450	109,725
					VIEW후원금	1,151,310	1,180,375
					학술지원금	0	0
학회	소계	718,984	330,78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학회이사회비	170,000	170,000	출판(회지)	10선컨텐츠	0	0
	학회행사수입	240,000	350,000		소계	1,170,760	1,290,100
	자료집판매	0	0		월드뷰구입비	0	0
	학회지판매	0	0		인쇄비	0	1,238,419
	학술지심사비	70,000	140,000	기타	발송비	0	1,785,480
	학술지계재료	3,310,000	0		소계	0	3,023,899
	저작권료	0	0		웹진원고료	0	0
	학회기타수입	0	0		CUP기금적립	0	400,000
					세금	246,530	0
	소계	3,790,000	660,000		잡비	3,300	300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4,423,640	1,010,125		소계	249,830	400,300
	전월 이니시스 입금	120,000	0	학회	학회강사료	0	0
	소계	4,543,640	1,010,125		학회장소사용료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당월 수입액	당월 수입액	21,824,171	14,474,405		학회홍보및기타	0	100,644
	전월 이월액	29,101,728	40,251,731		학술지인쇄비	0	2,950,697
					학술지발송비	0	891,410
					학술지심사료	0	850,000
당월 지출액	당월 지출액	10,674,168	21,802,713		학회조교비	0	0
	차월 이월액 (잔액)	40,251,731	32,923,423		학회기타	41,000	43,200
					소계	41,000	4,835,951
					이달 CMS 미수금	1,010,125	1,002,525
전월 이월액	전월 이월액	40,251,731	32,923,423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0	20,000
					소계	1,010,125	1,022,525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2021년 3월)

전 김성권, 3천5백 객도명, 김봉현, 김셋배, 김홍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령리장,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조성진, 주성택, 진상자, 최원길, 하태실, 5천 공충근, 구승진, 권지연, 김경태, 김기현, 김태도, 김상욱, 김상찬, 김성택, 김명진, 김태영, 김해창, 조승욱, 박광재, 박승훈, 박해조, 범정철, 최영경, 송시실, 신종철, 오영숙, 유영열, 문종식, 유영우, 이경미, 이길수, 이덕재, 이민하, 이수인, 임순수, 이종혁, 이지영, 이순자, 이항숙, 임소연, 임흥준, 장한일, 전보규, 정인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경태, 한해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김상욱, 전은경, 지경순, 최연우, 7천5백 강찬진, 박성태, 박상기, 손하철, 이경우, 이태욱, 이은수, 전영식, 정진영, 1만 강대용, 강언정, 강연희, 강은정, 강해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권관정, 기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광태, 김규우, 김근배, 김기용, 김기현, 김남진, 김보우, 김대원, 김도형, 김동연, 김박미, 김민식,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삼봉, 김셋배, 김성일, 김상진, 김성호, 김세영, 김성환, 김아람, 김아름, 김영숙,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수, 김윤관, 김은덕, 김은덕, 김재경, 김정모, 김정일, 김동중, 김정철, 김정호, 김종일, 김재남, 김주영, 김진근,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림, 김혁, 김현식, 김해정, 김해정, 김승갑, 김수식, 라영환, 루지호, 루지호, 루현모, 류화일,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상현, 백효관, 부현정교교회, 새남리치드, 서우미, 서우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노희,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이연, 송은희, 송충철, 송철호, 송태상, 신상철, 신성만,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안병열, 안산자, 안상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해영, 양희석, 연혜민, 오한우, 오성호, 오기남, 유동준, 유상일, 유상환, 유영준, 유은희, 유해무, 윤성현, 윤숙자, 윤영배,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영진, 이경자, 이기영, 김일철, 이노운, 이명도, 이명복, 이명진, 이명희, 이문일, 이명우, 이봉근, 이봉근, 이상근,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시엽, 이시영, 이아름, 이연규,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환,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종식,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창호, 이희진, 임동진, 임상철, 임재광, 임현하, 장영근, 장정국, 장승재, 장승태, 장은혜(양승태), 장은주, 장창수, 장태준, 장태환, 전병국, 전성규, 전창호, 전희철, 전희석, 전희경, 최한빈, 최희석, 최희경, 주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하, 홍대학, 홍요셉, 홍종석, 홍종인, 황기철, 황도은,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황혜연, 1만5천 김태원, 김진영, 박성곤, 박정호, 이태자, 정상성, 2만 David Han, 고웅재, 김남준, 김민경, 김보경, 김상일, 김성규, 김세광, 김수빈, 김수진, 김수석, 김영규, 김용식, 김은택, 김은택, 김재환, 김종현, 김태남, 박순우, 노순식, 마민호, 박상희, 박준모, 박혁경, 박희석, 박은석, 빛과소금교회, 순천호, 신안국, 안수, 양명호, 양혜원, 임준옥, 오성수, 오지석, 우시정, 유근호, 유경숙, 유승민, 유재은, 윤재림, 윤대형, 이근, 이덕영, 이선경, 이연우, 이원도, 이원재, 이주은, 이혜옥, 이희진, 임수복, 임지연, 장민석, 정다운, 정동식, 정영수, 정훈, 조성국, 채기현, 채희석, 최대규, 한신영, 홍판석, 황해정,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방용, 나용근,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손하철, 송인규, 송태현, 신해경, 오의석, 이근호, 이은식, 임희옥, 최동진, 최용준, 주더하, 황형철, 황정진, 4만 강광민, 문석우, 우병훈, 이기서, 허정도, 5만 강다일, 김종우, 김태훈, 김택호, 윤석찬, 윤원철, 이상민, 이형철, 전희경, 최정석, 한운석, 6만 김예원, 배대만, 서종준, 정민, 7만 사복희, 이동하, 최태연, 10만 박영주, 박정식, 양승훈, 이대경, 이원삼, 정수영, 장점연, 정은애, 12만 강상우, 김현철, 이정규, 최정일, 14만 박민석, 15만 삼성교회, 20만 송동호, 신국원, 최현일, 60만 강대민,

계 9,141,000원

기관후원

[illegible]

계 3,380,000원

전체 12,521,000원

회원후원

(2021년 4월)

3전 김성권, **3전5백** 카도영, 김봉현, 김셋별, 김응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영미강, 손영일, 문정, 장재수, 장헌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상자, 최원우, 최칠필, 하태실, **5전** 강대홍, 공승단,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태운, 김삼옥, 김성찬, 김용찬, 김장영, 김정식,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변경철, 서유미, 손영경, 송시선, 신종철, 오경숙, 유충열, 유송준, 김우영, 이경미,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영춘, 양한일, 장민정, 조광수, 최동희, 최두서, 최혜태, 한배선, 홍승기, **6전** 구재형, **7전5백** 강찬진, 박상공, 박성태, 방시기,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소, 전영직, 임규정, **1만** David Han, 강미래, 강언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옥, 고세일, 고용재, 권경호, 기민석, 길원평, 김경호, 김광태, 김규옥, 김근배, 김기현, 김남중, 김남진, 김능오, 김대원, 김도형, 김دون, 김막이, 김미림, 김민정, 김민석,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성태, 김셋별, 김성구,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훈, 김신성, 김아람, 김아름, 김명구, 김영숙, 김영화, 김용국, 김요니스, 김윤권, 김은태, 김문태, 김재완, 김갑래, 김경태, 김경환, 김경중, 김진철, 김중원, 김종일, 김지산, 김진영, 김지곤,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홍석, 김혜정, 김혜정, 김홍식, 김효숙, 나영진, 남승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호, 류화원, 마민호, 오상근, 오아론, 문제환,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상희, 박승호, 박시온,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학재,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백종국, 부천광안교회, 빛나고급교회, 사호재, 서유미, 서운발, 서화진, 생기진, 성영은, 소진희, 소진영, 소창민, 안희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중철, 송철호, 신상형, 유시남, 신찬록, 신현정, 신현주, 신교자, 안병렬, 안석, 안산자, 안성희, 안수빈, 양성진, 양성철, 양행보, 양혜영, 양해원, 양희석, 연예민, 염동환, 오민우, 오성호, 오지서, 유근호, 유동준, 유상원, 유상환,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관,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해림, 이강, 이경연, 이경작, 이기영, 이길형, 이노운, 이덕영, 이동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열, 이명숙,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상진, 이산복, 이승근, 이성미, 이상수, 이세창, 이수연, 이순진, 이금열, 이시영, 이하로, 이윤구,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영훈, 이도원, 이원재, 이원철, 이윤진,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재, 이윤정, 이윤철, 이준성, 이재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혜로, 이혜옥,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철, 임수복, 임재광, 임지연, 임준태, 정경근, 정슬기, 정승재, 정승하, 정승해(양준태), 정인숙, 정창수, 정태준, 전병희, 전성구, 정다은, 정도관, 정민식, 정봉현, 정건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야광,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호,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현, 조창희, 조현율, 조현차, 조혜정, 조혜선, 지미정, 차몽준, 채일, 채희석, 최اصل, 최اصل, 최성호,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원, 허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사연, 허연, 홍후각, 홍태하, 홍효심, 홍성석, 홍종민, 홍판석, 황기철, 황도운, 황성근, 황성원, 황세환, 황예스더, 황인준, 황혜수, **1만4천** 최병식, **1만5천** 김선하, 김순연, 박정호, 백예은, 정상섭, **2만** 강우관, 김보경, 홍미자, 김영록, 김용식, 김경호, 김태진, 박기모, 김삼옥, 순춘호, 순태상, 오성수, 우지성, 유경상, 이건, 이거서, 이연우, 장인석, 정동섭, 정훈,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3만** 강다을, 구영주, 김경민, 김동원, 김두한, 김방용, 김예원, 나용근,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박천규,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민규, 송태현, 신해경, 오의석, 이은실, 임희옥, 정민, 정재식,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3만5천** 전보파, **4만** 문득순, 우병봉, 황인경, **5만** 김승우, 김태훈, 김백희, 박정식, 양승훈, 육낙찬, 원윤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이형직, 전희경, 정은애, 한윤식, **6만** 김현숙, 박만규, 석종준, 이동천, 오경환, 조성봉, 최대규, **7만** 박복심, 최태연, **10만** 김태환, 박영주, 손봉호, 손정영, 신국원, 장수영, 장점영, 최현일, **12만** 김민철, 김성찬, 김우정, 서너영, 서진희, 심정연, 이우성, 이중삼, 최민비, 황인태, **120만** 양성만,

계 9,543,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디온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서로사랑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운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Calvary Korean Church, 분당우리교회.

계 3,100,000원

전체 12,643,500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합동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명예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윤현준	숭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회원가입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유 기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징 브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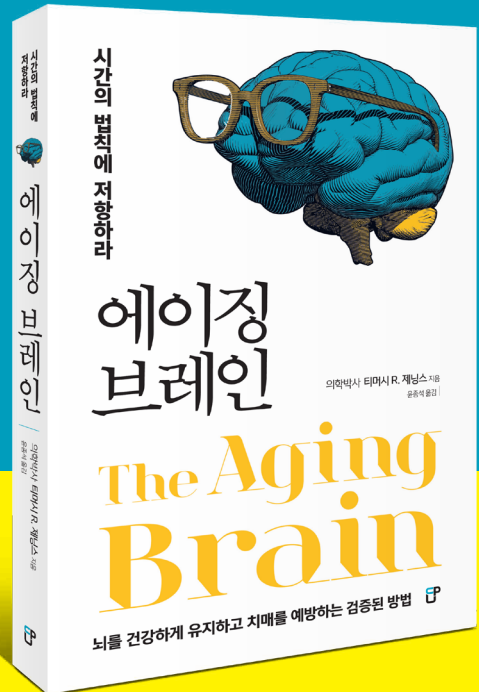
The Aging Brain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검증된 방법

시간의 법칙에 저항하라

생생한 뇌로 100세까지 살아가기

미국 소비자연구위원회 선정 최고의 정신과 의사
티머시 R. 제닝스가 뇌 건강의 원리를 해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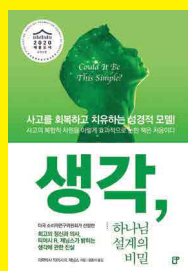
의학박사 티머시 R. 제닝스 지음
윤종석 옮김 | 368쪽 | 18,000원

젊은 청년은 자연산이지만, 건강한 노년은 예술품이다.
나이가 든다고 뇌까지 늙을 필요는 없다.
활력 있고 건강한 뇌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티머시 제닝스의 베스트셀러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생각, 하나님 설계의 비밀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



www.cupbooks.com

뉴노멀, 기독교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 행사일시

2021

5.22토

13:00-18:00

(대학원생 10:00-12:00)

온라인(Zoom & YouTube)

- ▶ 학문과 삶의 문제
- ▶ 기독교적 학문함의 실천적 함의
- ▶ 철학의 두 개념을 통해서 본 기독교 철학

손봉호 교수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양승훈 교수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교수

강영안 교수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

패널토의 사회 권오병 교수 경희대 교수

분과발표 대학원생, 공학, 교육학 I-II, 경제·경영, 사회과학 I-II, 신학 I-II, 의·약·간호학, 인문학 I-II, 자연과학, 학제간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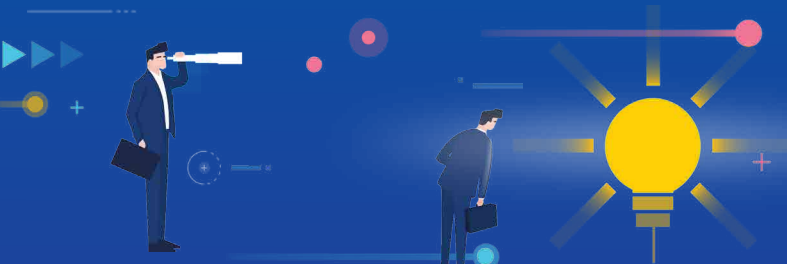
발표논문신청안내

- ▶ 2021. 04.09→04.16 (금): 논문신청 마감(1차 연장)
- ▶ 2021. 04. 21 (수): 초록 또는 요약본 마감
- ▶ 2021. 05. 03(월): 논문제출 마감

홈페이지: worldview.or.kr

이메일제출: gihakyun@daum.net

 신청·참가: bit.ly/kacs2021



NEW NORMAL

문의 02-3272-4967, gihakyun@daum.net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타워 910호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 새로남교회 협찬: 효산건강환경재단